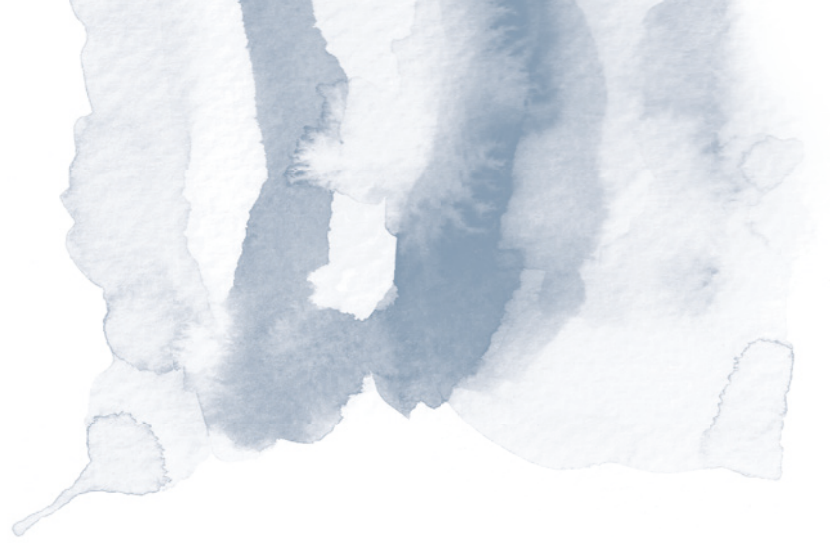


동행 同幸



너 성북, 다시 역사를 쓰다

성북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성북, 다시 역사를 쓰다

성북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성북, 다시 역사를 쓰다”를 펴내며

-성북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일제강점기 당시 성북구는 학생과 지성인들이 모인 학도촌이자 예술가들의 아지트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근거지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예로 심우장, 간송미술관, 수연산방 등 성북구의 대표적 명소에는 한용운, 전형필, 이태준 등 각 장소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김동삼, 이길용, 오세창, 이육사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숨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성북구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은 눈에 보이는 장소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북천과 안암천변에, 돈암동 거리 곳곳에는 3·1운동을 벌인 수많은 이들의 투혼이 서려 있습니다. 먼 만주 땅에서 항일 운동을 하던 독립투사들의 뜨거운 투지 또한 그들을 기억하는 이곳, 성북구에 남아 있습니다. 성북구에 족적을 남긴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만 엮어도 일제강점기와 그 전후의 한국사가 온전하게 완성됩니다. 그만큼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성북구는 중요하고 상징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는 오랜 시간 동안 독립운동가들을 조사하고 발굴해왔습니다. 역사를 잇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본분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2019년은 3·1운동 발생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성북구는 독립운동가들의 공로를 기리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난 한 세기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성북구의 독립운동가들을 알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성북구에서 출생하거나 거주 및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로, 일제강점기를 포함한 약 50년 동안 그들이 일궈낸 독립운동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낸 책입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독립을 외쳤던 정의로운 성북구 사람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성북구청장 김 영 배

이야기 두 번째

38 성북천을 따라 울려 퍼진 대한독립만세 - 1919년 3·1운동

- 39 독립을 위해 하나로 뭉친 각계의 사람들
- 40 3·1 독립선언의 중심에 선 한용운
- 41 일본 총리 앞에서 당당하게 독립을 선언한 임규
- 43 오세창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 인쇄와 배포
- 45 일본 유학 중이던 염상섭의 '오사가 독립선언서'
- 46 성북천과 안암천, 돈암동 산 등에서 일어난 대규모 독립운동
- 47 오직 나라를 위해 맞섰던 성북인들
- 49 일본 경찰의 잔혹한 탄압과 고문
- 50 최익환의 주도로 결성된 비밀결사단 대동단
- 52 조소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기초를 세우다

이야기 세 번째

56 성북, 독립투쟁의 근거지가 되다 - 1920년대 국내

- 57 격렬한 투쟁과 대중운동의 흐름 속 성북구
- 58 '진짜 저항'을 보여주다, 의열단과 고문 장건설
- 61 의열단의 숨은 조력자 오세덕과 저항의 은신처 성북구
- 62 항일단체조직과 노동쟁의로 일본에 대항한 성북인들
- 63 성북구락부의 활발한 대중운동과 서광훈
- 65 학생이 중심이 된 6·10만세운동
- 66 민족유일당 신간회와 성북인들

2 책을 펴내며

10 한국사 주요 사건과 성북구 독립운동가 활동사항 성북구 독립운동가들이 걸어온 독립의 길

14 성북구의 주요 독립운동가 흔들림도 두려움도 없었던 22인

- 15 성북구 출신 독립운동가
- 16 성북구 거주 독립운동가
- 19 해방 이후 성북구 거주 독립운동가

22 그 외 성북구 출신 및 거주 독립운동가들

이야기 첫 번째

28 성북, 애국의 바람이 일다 - 1910년대

- 29 옥새가 사라진 치욕의 그날
- 30 민족지도자의 길로 들어선 한용운과 조소앙
- 32 독립군으로 거듭난 김규식과 나중소
- 33 궁벽한 산촌에 일렁인 변화의 바람
- 34 애국계몽운동과 항일의병의 중심이 된 삼선평과 흥천사

이야기 네 번째

70 국외독립운동기지에서 활약한 성북인들 - 1920~1930년대 국외

- 71 만주로 간 성북인들
- 72 '경학사'하면 김동삼, '이씨 6형제'하면 이규창
- 74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초석을 다지다
- 77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한 나중소와 김규식
- 79 험난했던 두 독립투사의 길, 그리고 창대한 끝
- 81 임시정부를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
- 82 조소앙,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다
- 84 임시정부의 든든한 대들보, 김의한과 정정화

이야기 다섯 번째

88 성북, 독립을 말하다, 노래하다, 외치다 - 1930년대

- 89 장기화된 식민 통치,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 90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운 손진태
- 91 우리말을 연구한 조선어학회
- 92 손기정 가슴의 일장기를 지운 애국지사 이길용
- 95 김교신, 흑한에 살아남은 개구리에 우리 민족을 빚대다
- 96 독립을 꿈꾸던 진정한 예술가 김복진
- 98 시로 적은 조국해방의 열망
- 99 조용했지만 뜨거웠던 저항의 근거지 성북
- 101 1930년대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
- 103 중·일전쟁으로 변화를 맞이한 국외 독립운동

이야기 여섯 번째

106 조국 해방을 위한 성북인들의 마지막 투쟁 - 1940년대

- 107 수세에 몰린 일본과 끝까지 저항하는 독립투사들
- 108 시국담으로 고초를 겪은 성북인들
- 109 독립의 희망을 말한 대가는 가혹한 처벌로
- 110 민족의식을 일깨운 두 사람, 이완기와 김광섭
- 112 끝까지 싸우겠다는 일념으로 나선 김재황과 최승우
- 113 '5인 독서회'와 '조성회' 등의 항일결사단체 등장
- 114 1940년 초 조직된 비밀결사단체, 조선건국동맹
- 114 한국광복군, 가장 강력한 독립군의 등장
- 116 한국광복군으로 활약한 베테랑 군인 최용덕
- 117 조국 해방의 순간, 헛되지 않았던 독립군들의 노력

이야기 일곱 번째

122 광복, 끝나지 않은 성북인들의 이야기 - 1945년 이후

- 123 혼돈의 해방정국
- 124 건국을 준비한 좌우합작 단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 125 장건상과 배성룡, 이념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 127 분단을 막기 위해 끝몰한 독립운동가들
- 128 국외가 아닌 국내에, 임시가 아닌 정식의 정부가 수립되다
- 129 6·25전쟁의 발발과 남북된 독립운동가들
- 131 친일파 연구의 대가 임종국
- 133 성북, 다시 역사를 쓰다

성북, 다시 역사를 쓰다

성북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성북인의 에피소드

- 31 **에피소드 하나** 한용운의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 42 **에피소드 둘** ‘언어천재’ 임규와 미륵암
- 44 **에피소드 셋** 성북구의 위대한 ‘멘토와 멘티’, 오세창과 전형필
- 51 **에피소드 넷** 의친왕 망명 작전과 성락원
- 60 **에피소드 다섯** 의열단원 김시현과 성북구 독립운동가들의 인연
- 73 **에피소드 여섯** 이회영의 아내이자 이규창의 어머니가 쓴 『서간도시종기』
- 76 **에피소드 일곱** 50대 장년의 나이로 만주에 망명해 백발을 휘날린 나중소
- 78 **에피소드 여덟** 세 명의 김규식
- 85 **에피소드 아홉** 어느 독립운동가 가족의 이야기
- 94 **에피소드 열** 이길용의 일장기 말소 사건 그 전후 이야기
- 118 **에피소드 열하나** 광복절에 눈을 감은 공군 창군의 주역

성북인의 목소리

- 36 **성북인의 목소리 하나** 한용운
- 54 **성북인의 목소리 둘** 임규
- 68 **성북인의 목소리 셋** 이육사
- 86 **성북인의 목소리 넷** 김동삼
- 104 **성북인의 목소리 다섯** 김광섭
- 120 **성북인의 목소리 여섯** 조지훈
- 134 **성북인의 목소리 일곱** 신동엽



성북구 독립운동가들이 걸어온 독립의 길

1910년대

무
단
통
치
시
대

1910
~
1919

경술국치

조선총독부설치 및
토지조사사업시행

105인사건

신흥무관학교 설립

대한독립의군부 조직

안창호, 흥사단 조직

대한광복군정부 수립

대구에서
대한광복회 조직

대한독립선언서 기초 및 39인 공동서명

토지조사사업완료

고종 사망

2·8독립선언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수립

1910

- **김동삼** 독립기지건설 위해 만주 답사
- **한용운** 독립군 군관학교 방문 및 만주 지역 유랑

1911

- **김동삼** 만주로 망명 후 신흥무관학교 설립 및 독립기지건설에 주력

1912

- **노은 김규식** 의병활동 정리 후 만주로 망명
- **안재홍** 도쿄에서 조선유학생 학우회 조직

1913

- **한용운** 『조선불교 유신론』 간행
- **조소앙** 만주로 망명 후 동제사 활동

1914

1915

1916

- **장건상**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 법과 졸업 후 상하이로 망명

■ **최용덕** 중국 육군군관학교 졸업

1917

- **나중소** 만주로 망명

1918

- **한용운** 월간지 《유심》 창간

1919

- **한용운, 오세창** 민족대표 33인으로 독립선언서 서명
- **임규** 일본에 「독립선언서」 전달
- **최익환** 대동단 조직 후 의친왕 이강 망명 주도
- **조소앙** 대한독립의군부 조직, 대한독립선언서 기초
- **안재홍** 대한민국청년외교단 활동 중 체포
- **유우석, 조화벽** 등 전국 각지에서 3·1운동 참여

1920년대

의열단 고문으로 무장독립투쟁 지원 **장건상**

1920

독립군 연합 부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

의열단 창립

1921

상하이와 국내를 오가며
독립운동자금 임시정부에 전달

김익상, 조선총독부
투탄의거

조선어학회 발족

자유시 참변

의열단 가입 **최용덕**

1922

형평운동 시작

대동단의 총재이자 **김의한**의 아버지인 김가진 사망

상하이에서 귀국 후 의열단 지원 **오세덕**

1923

김상옥, 종로경찰서
투탄의거

만주에서 고려혁명군 조직 **노은 김규식**

성북구락부 조직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 개최

방정환,
어린이날 제정

관동대지진·관동대학살

북로군정서 재조직, 서무부장 및 참모 활동 **나중소**

1924

만주에서 신민부 활동 **노은 김규식, 나중소**

1925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

만주에서 정의부 활동 **김동삼**

카프 가입 **김복진**

카프(KAPF) 결성

일본 치안유지법 제정

「님의 침묵」 발표 **한용운**

1926

순종 사망

6·10 만세운동

안재홍을 중심으로 **한용운, 최익환, 조헌영** 등
신간회 활동 참여

1927

신간회 설립

성북소년회 조직

만주로 망명 후 광복단 활동 **최익환**

1928

한글날 제정

지린성에서 사망 **나중소**

신간회 광주학생사건 진상보고
민중대회 사건으로 투옥 **안재홍**

1929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만주에 국민부 설치

1930년대

병
참
기
지
화
및
전
시
활
동
시
기

1931
~
1945

신간회 해소
만주사변

한인애국단 조직

브나로드운동 시작

이봉창, 도쿄 의거

윤봉길, 상하이 의거

이회영, 다롄에서 사망
임시정부, 항저우로 이동

조선어학회 맞춤법
통일안 발표

진단학회 조직

민족혁명당 조직

손기정,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중·일전쟁

일본 민족 말살 정책 시작

국가총동원법 시행

문예지 《문장》 창간

1940년대

일본 창씨개명 강요

한국광복군 창설

임시정부 충청으로 이동

태평양전쟁 발발

조선어학회 사건

1931

- **노은 김규식** 헤이룽장성에서 반대파에 의해 사망
- **조소앙** 삼균주의에 의거한 현실분석과 독립운동 방법론과 과제 정립

1932

- **이육사** 중국에서 의열단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1기생 입교
- **조화벽** 양양에 양명학교 설립 후 농촌계몽운동

1933

- **한용운** 성북동에 심우장을 짓고 거주 시작

1934

- **김복진** 신건설사사건으로 김기진과 체포
- **손진태** 《진단학보》 창간

1935

- **이규창** 친일파 이용로 암살로 엄형순과 함께 체포

1936

- **이길용** 동아일보에 손기정사진 일장기 말소로 강제퇴직

1937

- **김동삼** 서대문형무소에서 사망, 심우장에서 장례

1938

- **오세창** 성북동 보화각 상량식 참석

1939

- **이육사** 《문장》지에 「청포도」, 「절정」 등 발표

1940

- **최용덕** 광복군 총사령부 총무처장 역임
- **김복진** 사망

1941

- **조소앙** 「대한민국건국강령」 기초, 임시정부 국무위원회에서 공식 채택
- **김광섭**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

1942

- **김교신** 《성서조선》의 권두언 '조와'로 체포
- **안재홍** 조선어학회의 조선어편찬사업에 연루 수감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 독립 약속 **조소앙**

창씨개명에 불응해 투옥 **이길용**

심우장에서 사망 **한용운**

베이징 감옥에서 사망 **이육사**

포츠담 회담 참여, 한국 독립 보장받을 **조소앙**

한국광복군 참모처장, 사령관 등 역임 **최용덕**

1943

카이로 회담

1944

조선건국동맹 결성

1945

한국광복군 특수부대 편성

알타 회담, 포츠담 회담

8·15 광복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설립

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통치 반대운동

1946

돈암동 거주 시작 및 비상국민회의의 참여 **조소앙**
비상국민회의와 좌우합작위원회 위원 활약 **안재홍**

좌우합작운동 **장건상, 배성룡**

조소앙, 배성룡, 김의한 등 남북협상에 참여

사망 **임규**

반민특위 활동 **조현영**

1948

5·10 총선, 대한민국 정부수립

남북협상

제주 4·3 사건

1949

대한민국 공군 창군

1950년대 이후

조소앙, 장건상, 안재홍, 조현영 등 국회의원 당선
조현영, 조소앙, 김의한, 안재홍, 이길용, 손진태 등
주요인사 대거 납북

휴전협상의 비밀요원으로 **최익환**
미8군에 의해 평양으로 밀파 후 억류

정릉동에 거주 시작 **장건상**

1950

제2대 국회의원 선거

6·25 전쟁 발발

1951

1·4 후퇴

1952

휴전 협정

1953

『친일문학론』 발간 **임종국**

「껌데기는 가라」 발표 **신동엽**

1966

1967

흔들림도 두려움도 없었던 22인

성북구의 주요 독립운동가

성북구 지역을 고향으로, 활동거처로,
혹은 해방 후의 거주지로 한 독립운동가들은
이제껏 조사된 인물만도 112명에 이릅니다.
그중에서도 큰 활약으로 목직한 울림을 준
주요 독립운동가 22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약 반세기의 이야기에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하거나
자세한 활동이 소개될 주요인물들입니다.

성북구 출신 독립운동가

나 중 소

청산리 전투의 백발의 영웅



1867~1928 / 독립장 / 정릉리 106번지 출생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지방군대인 대한제국 진위대 부위로 활동 중 정미7조약으로 군대가 해산되자 만주로 망명했습니다. 대한정의단 군사교관으로 초빙돼 독립군을 양성했으며 대한정의단이 북로군정서로 확대된 후 참모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북로군정서 사령관인 김좌진과 함께 청산리 전투에 참여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이후 군인양성소 사령관, 신민부 중앙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중 지린성에서 순국했습니다.

오 세 덕

의열단의 숨은 조력자



1897~1986 / 애국장 / 안암동 127번지 출생

1919년 독립운동단체인 대동단과 철원애국단에서 활동했으며 애국단 대표로 상하이로 파견됐습니다. 이후 임시정부에 참여해 철원군 연통제 조사원으로 임명됐으며 대한국민의회를 조직하는데 협조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이른바 '김시현 사건', '구여순 사건' 등 의열단의 활동을 지원하며 옥고를 치렀습니다.

최 용 덕

한국광복군이자 공군 창군의 주역



1898~1969 / 독립장 / 성북동 265번지 출생

15세에 중국으로 망명 후 중국 육군군관학교와 보정항공학교를 거쳐 공군으로 활약했습니다. 중·일전쟁 때는 중국공군의 신분으로 참전했으며 당시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임시정부의 독립 지원금으로 썼습니다. 임시정부 광복군으로도 활동했으며 해방 후 대한민국 공군 창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성북구 거주 독립운동가

오 세 창

민족대표 33인이자 3·1독립선언의 주도자



1864~1953 / 대통령장 / 성북동 128번지 거주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이자 추사 김정희의 학맥을 이어받은 서예가이며 한학에 있어 대학자로 통합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앞장섰고 이는 곧 간송 전형필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작성과 인쇄, 배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임 규

일본 총리에게 독립선언서 전달한 애국지사



1867~1948 / 애국장 / 성북동 미륵암에 거주

3·1운동의 기획과 실행에 참여한 핵심 인사 48인 중 한 사람으로 3·1운동 당시 일본에 들어가 일본주재 외국 공관과 일본 총리에게 독립선언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말년을 성북동 미륵암에서 보내며 『북산산고』라는 한시집을 발행했습니다.

김 동 삼

독립군이 존경하는 민족보통의 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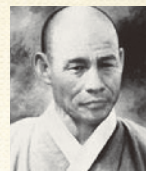


1878~1937 / 대통령장 / 심우장(성북동 222-1)에서 장례

한일강제합방 이후 1911년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의열단 단원을 비롯한 많은 독립군을 양성한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참여했으며 서로군정서를 조직하고 군사지휘를 총괄하는 참모장을 맡았습니다.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쳤으며 1937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 한용운이 심우장에서 장례식을 엄수했습니다.

한 용 운

민족대표 33인이자 민족지도자



1879~1944 / 대한민국장 / 성북동 222-1 거주

민족지도자로, 민족대표 33인으로, 또한 민족시인으로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1905년 승려로 출가 후 불교계의 대표로 불교개혁을 주장하고 민족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3·1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성북구의 명소가 된 심우장은 그가 1933년부터 1944년 입적할 때까지 머물던 집입니다.

김 규 식

독립군의 호랑이 장군



1882~1931 / 독립장 / 돈암동 거주

대한제국 육군의 참위를 지냈으며 1907년 정미7조약 이후 군대가 해산되자 철원에서 의병을 일으켜 수차례 일본군을 대파했습니다. 이후 만주로 망명, 김좌진 등 독립운동가들과 북로군정서를 조직했고 1920년 청산리 전투에 제2연대 제1대대장으로 참가해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31년 반대파에 의해 안타깝게 순국했습니다.

배 성 룡

이념을 극복하고 하나로 뭉친 조국을 꿈꾸다



1896~1964 / 애국장 / 성북동 176-4호 거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근무한 언론인으로서 사회주의 단체인 화요회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26년에는 조선공산당에 입당해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옥고를 치렀고 1934년에는 의열단의 국내 연락책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해방 이후 좌우합작추진회 조직에 참여하는 등 중도파로서 좌우익의 편향노선을 비판했으며 남북협상을 지지하고 제2차 특사로 남북협상에 참여했습니다.

이길용

일장기 말소사건의 주인공



1899~1950 / 애국장 / 성북동 56번지 거주

1936년 동아일보 체육부 기자 재직시절,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제거한 후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일장기 말소 의거 사건으로 그는 동아일보에서 강제 퇴직 당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항일운동으로 여러 차례 투옥됐으며 성북동의 이웃인 한 용운, 이태준, 전형필, 배성룡 등과 교류하다 6·25전쟁 때 납북됐습니다.

김교신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기독교 사상가



1901~1945 / 건국포장 / 정릉동 378-1 거주

성서 중심의 무교회주의 기독교 사상을 전파한 독립운동가로 1927년 월간 동인지 《성서조선》을 창간했습니다. 1942년 《성서조선》의 머리말인 '조와'(弔蛙, 얼어죽은 개구리를 애도하다)를 실어 해방을 염원하는 민족의 희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가 체포 후 옥고를 치렀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의 마라톤 코치로도 활동했습니다.

김복진

어둠을 빛낸 근대조각의 선구자



1901~1940 / 애국장 / 성북동 175번지 거주

우리나라 근대 조각의 개척자이자 독립운동가로서 조선프로레타리아 예술가동맹(KAPF)에 가입했으며 1927년 고려공산청년회 가입 후 항일활동을 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습니다. 1934년에는 동생인 소설가 김기진과 함께 신건설사 사건으로 성북동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작품 활동 또한 활발히 했으나 6·25전쟁 중 많은 작품이 소실되었습니다.

이육사

온몸으로 저항하는 민족시인



1904~1944 / 애국장 / 종암동 62번지 거주

1926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에 연루돼 구속되었고 1929년 중국으로 가 의열단 등 여러 독립운동단체에 가담해 독립투쟁을 벌였습니다. 1932년에는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1교생으로 입교해 이듬해 졸업했습니다. 이후 1939년 종암동으로 이사해 작품 활동에 매진했으며 이 시기 「청포도」, 「절정」 등의 대표작을 《문장》에 발표했습니다.

해방 이후 성북구 거주 독립운동가

장건상

의열단의 든든한 고문



1882~1974 / 대통령장 / 정릉동 338-1 거주

미국 유학 후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와 의열단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후 외무차장으로 활약했고 의열단 창립 후 고문으로서 무장독립투쟁을 지원했습니다. 해방 이후 조선인민당과 근로인민당의 부위원장으로, 제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조소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핵심



1887~1958 / 대한민국장 / 돈암동 445-1(현 동소문동 1가 50) 거주

삼균주의를 제창해 임시정부가 어떤 이념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할지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는 임시정부의 외교부장으로 우리나라가 카이로 회담에서 결의한 우리나라의 독립보장을 포츠담 회담을 통해 재확인 했습니다.

최익환

대동단과 신간회 창간의 주역



1890~1959 / 애국장 / 돈암동 458-392 거주

독립운동단체인 대동단과 신간회 결성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이며 만주를 오가며 무장독립운동단체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십여 년을 복역했고 6·25전쟁 중에는 휴전협정을 위해 애쓰다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안재홍



식민사관에 저항하는 주체적 사학자

1891~1965 / 대통령장 / 돈암동 산 11-152 거주

시대일보 이사과 조선일보 사장 등을 역임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임시정부의 비밀결사인 대한민국청년외교단으로 활동했으며 신간회 총무간사로도 활약했습니다. 역사저술을 통해 민족정신을 알리고 좌우합작운동을 통해 건국에 앞장섰습니다.

조화벽



양양 3·1 운동의 불씨

1895~1975 / 애족장 / 정릉동 604-16 거주

3·1운동 당시 개성 호수돈 여학교에서 '호수돈 비밀결사대'를 조직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개성에서의 만세운동 이후 조화벽이 양양으로 가져간 독립선언서는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양양 3·1운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유우석이 그의 남편입니다.

유우석



동생의 역사에 가려진 독립운동가

1899~1968 / 애국장 / 정릉동 604-16 거주

1919년 공주 장날을 이용해 독립운동만세를 주도했습니다. 같은 날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부모님과 동생 유관순 열사를 모두 잃는 비극을 겪었으나 독립운동가로서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릉, 양양 등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7회나 구금, 석방을 되풀이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조화벽이 그의 아내입니다.

정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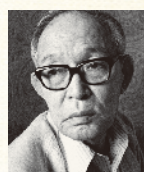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주인

1900~1991 / 애족장 / 동선동 3가 거주

대동단 총재인 시아버지 김가진, 남편 김의한과 함께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1920년 상하이 망명 후 6차례에 걸쳐 국내외 상하이 왕복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임시정부가 위기를 옮길 때마다 함께 움직이며 항일활동을 펼쳤고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도맡았습니다.

김광섭



독립을 꿈꾸던 '성북동 비둘기'

1905~1977 / 애국장 / 성북동 168-34 거주

일본 유학 후 중동중학교에 영어교사로 근무하면서 일본의 민족차별정책, 조선어말살정책, 언론탄압정책 등을 비판하며 학생들의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 잔혹한 고문을 당하며 미결구류 포함 3년 8개월 동안 복역했습니다. 해방 이후 성북동에 거주하며 성북동을 상징하는 그의 대표작 「성북동 비둘기」를 썼습니다.

이규창



아버지에 이은 운명적 독립운동가의 길

1913~2005 / 독립장 / 정릉동 226-34 거주

만주에 독립운동기지를 세우는 데 큰 이바지를 한 이씨6형제 중에서도 큰 활약을 했던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의 셋째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베이징과 상하이 등으로 이주하며 독립운동을 했고 1935년 동료 엄형순과 함께 친일파 이용로를 암살한 사건으로 체포되어 13년 형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 중 옥중에서 조국의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외 성북구 출신 및 거주 독립운동가들

성북구 출신 독립운동가

정 만 산 1886~1941 / 대통령표창 / 월곡동 24번지 출생
1919년 3월 26일 고양군 송인면 면사무소 앞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다가 보안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태형 90대를 맞았습니다.

피 한 봉 1894~미상 / 대통령표창 / 안암동 164번지 출생
1919년 3월 23일 용두리에서 많은 이들이 만세를 외치는 모습을 본 피한봉은 안암천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진행했고 보안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태형 90대를 맞았습니다.

성 봉 진 1908~1928 / 건국포장 / 성북동 (주소미상) 출생
서울에서 경성출판노동조합에 참여해 활동하다 1928년 11월 5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동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장티푸스에 걸렸으나 단지 감기치료만 받아 병세가 악화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1928년 11월 22일 순국했습니다.

최 승 우 1915~미상 / 애족장 / 안암동 228번지 출생
1943년 12월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향하다 발각되어 강제 귀국 당했습니다. 이듬해 강제징용 반대 격문을 배포했고, 안암정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6~70명의 동지를 모아 한상룡, 윤치호, 이광수 등 유명 친일조선인과 조선총독을 처단하려다 같은 해 10월 23일 체포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3년을 받았습니다.

성북구 거주 독립운동가

문 석 준 1894~1944 / 애국장 / 성북동 195-23 거주
1924년 4월부터 1928년 3월까지 동경 고등사범학교에서 수학하며 학우회와 재일조선교육연구회 등에 소속되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1928년 초 귀국한 후에는 보성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일하며 신간회 경성지회에서 활동했습니다. 1933년 2월부터 1937년 7월까지 조선일보 영업국장으로 재직했고 이후 광산 등을 경영했습니다. 1943년 함흥부 성천정에서 사람들에게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귀결되면 조선독립이 실현될 것이니 재선 조선동포는 그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해 체포되었으며 육군해군형법 위반으로 1년 2월을 받고 복역 중 이듬해 1월 22일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희

1893~1949 / 애족장 / 성북동에서 병원 운영[주소 미상]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성북동에서 병원을 경영했습니다. 1922년 11월에는 《신생활사》 잡지 기자로 격문과 자유노동조합 취지서를 인쇄·발부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 복역했습니다. 1925년 4월에는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을 역임해 식민지정책 타도와 조선총독정치 배격을 주장했으며 이에 체포되어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광복 후에는 입법의원 관선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김수룡

1901~1973 / 애족장 / 성북동 175-8 거주

1919년 3·1운동 당시 서울 중앙학교 학생이었던 김수룡은 파고다 공원에서 단성사 일대에 걸쳐 독립선언서를 배포했습니다. 이후 고향인 기장으로 돌아와 400여 매의 독립선언서를 등사한 후 4월 5일과 10일 기장공립보통학교 교정에서 군중과 함께 만세운동을 하다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1년 6개월의 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박홍식

1902~미상 / 건국포장 / 성북동 5번지 거주

구두 직공이었던 박홍식은 1919년 3월 23일 밤 종로구 5정목에서 15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으며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이듬해 2월 21일 출옥했습니다.

강천룡

1904~미상 / 건국포장 / 돈암동 288-41 거주

1944년 7월 종로구 명륜동 지인의 집에서 “사이판이 함락되고 동조내각은 총 사퇴해 일제의 패망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머지않은 시기에 미군이 상륙할 것이고 그 때를 대비해 축장을 만들어 두었다가 미군과 함께 일본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해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체포돼 1년 6월의 징역형을 치렀습니다.

김현국

1905~1946 / 애족장 / 안암동 86-11 거주

1929년 2월 충북 충주군 충주면 읍내리 금성여관에서 동료들과 함께 무정부주의를 표방하는 항일운동을 하기 위해 문예운동사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잡지 《문예운동》을 간행하려다 체포되었으며,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2년 형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강영준

1906~미상 / 대통령표창 / 돈암동 499-11 거주

돈암동에 거주하며 경성인문중등학교에 다니던 중 1943년 11월 고향의 지인으로부터 “곡식의 공출이 전년의 3배로 강화되어 농민이 곤궁해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에 전북 임실 강진의 장인에게 “곡식의 공출문제가 정읍보다 더 심하지 않느냐”고 물으며, “이런 일이 지속될 시 조선민족의 내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전문대학의 문과계통 학문이 폐지되고 특별지원병으로 보내려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본 경찰은 편지의 내용이 민심을 어지럽히는 사함을 담고 있다고 판단해 강영준을 체포하고 징역 6월에 처했습니다.

유영민

1912~미상 / 대통령표창 / 정릉동 111-4호 거주

송인면 정릉리에 소재하는 먹 제조공장의 직공으로 1945년 1월 고창면 읍내리 이대성의 집에서 지인에게 “미국 비행기에는 조선인이 탑승하고 있어서 평양 공습 때에도 조선인이 있는 곳에는 폭탄을 투하하지 않았고 일본인이 있는 곳에만 폭탄을 투하했다. 또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한 조선인들이 조선독립을 계획하고 경성으로 많이 오고 있다”고 말해 시국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죄로 징역 6월을 받았습니다.

박노태

1915~1983 / 건국포장 / 성북동 189-2호 거주

1943년 경성제국대학을 졸업 후 휘문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했습니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했던 그는 내선일체를 거부하며 한국 민족이 더 우수함을 강조했고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전을 예견하는 한편, 주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숙지시키며 독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체포돼 1년의 옥고를 치르다가 광복을 맞이하며 출옥했습니다.

이근창

1916~1944 / 애족장 / 성북동 177-25호 거주

1942년부터 약 1년간 조선방송협회의 보수과 기술원으로 근무하면서 단파방송을 청취했고 그 내용(최후의 승리는 미영 연합군 측에 있으며 태평양전쟁이 미영 연합국의 승리로 종료되면 반드시 조선을 독립시킬 것이다)을 성북동에 거주하는 김병옥과 노현중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서대문형무소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김재황

1917~2004 / 애족장 / 돈암동 458-349 거주

연희전문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1939년 12월에 동교생과 함께 항일결사 조선학생동지회를 조직하고 3·1운동과 같은 방법으로 독립투쟁을 거행하기로 다짐했습니다. 1942년 3월 1일을 거사일로 정한 김재황은 해외 유학생 등과 함께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 하부조직을 설치하던 중 1941년 7월 일본 경찰에 발각돼 징역 1년 6월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정진숙

1919~2008 / 대통령표창 / 성북동 177-40호 거주

조흥은행 종로지점에 근무하던 정진숙은 1944년 10월 동 지점에 서 동료들과 잡담 중 “사이판 섬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일본군이 사이판에서 옥쇄(명예나 충절을 위하여 깨끗하게 죽음)할 당시 일본인 이외의 사람은 밖으로 내보냈는데 조선인은 예외로 해 전부 기관총으로 사살했다”는 이야기를 해 체포 후 징역 8월을 받았습니다.

신락현

1921~미상 / 대통령표창 / 돈암동 262번지 거주

1942년 배재중학교 재학 중 정치를 통해 민중을 지도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주변에 말했습니다. 1944년 6월 충남 서천군 김영현의 집에서 지인들에게 조선독립사상에 매진하자고 다짐했으며, 같은 해 8월 함평여관에서는 농촌정신대를 조직한 후 적절한 시기에 이를 역이용하자고 김영현과 협의했습니다. 이후 태평양전쟁에서의 일본 패망에 따른 결정적인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다 체포되었습니다. 1945년 4월 치안유지법 및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의 처분을 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완기

1924~1942 / 애국장 / 성북동 133-60호 거주

중등학교를 다니던 중 1940년 7월 성북동 133번지의 손용우에게 “조선인은 조선을 잊지 말고 학업에 열중해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해야한다”라는 취지로 동의를 구했고, 같은 해 9월 교실에서 “조선독립은 만주사변을 계기로 실현될 것이다”라며 지원병제도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으며, 학생들의 군사훈련 또한 반대했습니다. 1940년 10월경 중등학교와 문화학원 학생의 민족의식 고취사건으로 체포되어 가혹한 신문과 조사를 받다가 1942년 5월 23일 순국했습니다.

성북, 애국의 바람이 일다

- 1910년대



항일무장 의병
(1907년)

목숨이 사라진 치욕의 그날

시간을 거슬러 1910년 8월 29일로 가봅시다. 그날,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경술년에 나라를 잃는 치욕을 겪었다고 해서 '경술국치'라 이르지요. 일본은 한일의정서(1904)를 통해 광대한 토지를 군용지로 점령하고 을사늑약(1905)을 체결해 외교권을 박탈하고 정미7조약(1907)을 체결해 군대를 해산시킨 후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그 후 계속된 일본의 침략 정책과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이권다툼 속에서 약소국 조선은 결국 무너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통탄했고 일본과 을사오적에 대한 분노는 들끓었습니다. 성북동에 '음벽정'이라는 별장을 갖고 있던 대한제국의 관리, 민영환은 을사늑약 이후 자결하고 안중근 의사는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합니다. 정미7조약으로 인해 조선의 군대는 강제 해산 되었으나 군인들은 자발적으로 의병이 되어 항일무장투쟁에 힘을 쏟습니다. **독립을 향한 긴 싸움의 신호탄이 터진 셈입니다. 그리고 그 투철한 저항의 기록은 '성북구'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독립운동가들의 생애로부터 차근히 짚어갈 수 있습니다.**



안중근



조소앙

민족지도자의 길로 들어선 한용운과 조소앙

여기, 조국의 광복을 갈망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과 조소앙입니다. 다른 듯 비슷한 두 사람은 독립운동가를 넘어 '민족지도자'로 칭해지는 이들입니다.

동학혁명 실패 후 승려로서 수행의 삶을 살고 있던 한용운은 일찍이 중국과 일본을 돌며 자주적인 불교 사상을 탐구하고 혼란한 조국의 현실을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경술국치 이후 그는 중국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을 돌며 애국지사들을 만나 조국의 광복 문제와 국내 사정들을 의논했으며 동시에 불교의 현실참여와 민중계몽운동을 선포합니다. 귀국 후 그는 1913년 『조선불교유신론』을 통해 당시 불교계의 부패와 친일을 비판하며 우리나라 불교의 자주적인 모습을 되찾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1916년에는 월간지 《유심》을 발행해 민중계몽운동에 앞장서고 1918년 말, 종교계의 통합과 독립운동가들의 연대를 통해 거국적인 독립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같은 시기, 일본 메이지대학을 다니던 유학생 조소앙은 조국광복의 독립사상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은 곧 열망으로 번졌고 그는 조국독립을 꿈꾸며 1913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합니다. 이후 신채호, 박은식과 함께 한국인 독립운동 단체인 동제사에 가입하고 반일단체 대동당을 조직하지요. 또한 민족단결을 목적으로

한용운의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그때다! 뒤에서 따라오던 청년 한 명이 별안간 총을 놓았다! 아니, 그때 나는 총을 놓았는지도 무엇을 놓았는지 몰랐다. 다만 "땅" 소리가 나자 꽃가가 섰었다. 두 번째 "땅" 소리가 나면 또 총을 맞으며 그제야 아픈 생각이 난다." (중략)

1911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기 시작한 이듬해 만해 한용운은 만주로 떠납니다. 그는 만주에 자리 잡은 조선인들을 만나 그들의 안부를 묻고 고국의 사정을 들려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한 산촌에서 머물고 떠나는 길, 자신을 배웅해주던 조선 청년들에게 별안간 총을 맞습니다. 두 발의 총을 맞고 혼미한 정신으로 '관세음보살'까지 본 한용운은 간신히 마을로 돌아가 치료를 받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는 그들이 총을 쏜 까닭이

아마도 외지인에 대한 의심 때문은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그때 한용운이 죽었다면 우리의 독립운동사와 근대 불교사는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한용운은 이 아찔한 경험을 16년이 지난 1927년, 잡지 《별건곤》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만주산간에서 청년의 권총에 마저서'라는 제목의 회고록으로 남겼습니다.



만해 한용운

단군, 석가,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연결해 육성교(六聖敎)라는 구국종교를 창안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 사이에서도 그의 활약이 두드러진 시기는 3·1운동



대한제국 군대 해산
(1907년 8월 1일)

에 즈음해서입니다. 조소앙은 1919년 2월, 무장항쟁노선이 집약된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이를 독립운동 지도급인 사 39인의 공동서명으로 발표해 3·1운동에 큰 영향력을 떨쳤습니다.

독립군으로 거둔 김규식과 나중소

오로지 독립만을 열망하며 비슷한 길을 걸었던 서로 닮은 두 사람이 또 있습니다. 경술국치 전후로 항일 의병활동에 있어 큰 활약을 했던 독립운동가가 노은 김규식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주역 중 한 사람이지요. 대한제국 시위대의 부교(중사계급)를 지내고 육군연성학교에서 근무한 바 있던 그는 1907년 일본에 의해 군대가 해산 당하자 의병장 허위(1855~1908)의 부대에 참여, 강원도 일대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했고 약 나차레 일본군을 대파했습니다. 이른바 독립군의 호장군, 즉 호랑이장군으로 불렸던 그의 투혼은 1920년대에 더욱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김규식과 비슷한 길을 걸은 또 한 사람이 나중소입니다. 성북구 정릉동에서 출생해 16살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지방군대인 대한제국 진위대의 부위(위관급)로 활동했던 그는 정미7조약으로 인한 군대 해산 이후 1917년 만주로 망명합니다. 망명 당시 이미

50대의 장년의 나이였지만 항일 운동에 대한 그의 신념은 강했습니다. 이렇듯 두 사람은 경술국치를 전후로 앞으로 전개될 긴 싸움에 대해 분명히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들이 만주 독립군의 주역이 되리라 누구도 상상치 못했겠지만 독립을 향한 두 사람의 열망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궁벽한 산촌에 일렁인 변화의 바람

한편 경술국치 전후의 성북구는 주로 농사를 주업으로 하던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성밖 마을이었습니다. 일본이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자료를 보면 주로 대지, 전답, 임야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국권을 잃고 애국지사들이 동분서주하는 동안 성북구 역시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옛 한양도성 혜화문

서울 중심에서 살짝 비껴간 동네는 일찍이 ‘학도촌’의 배후지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신작로가 생기면서 도심과의 거리가 단축되고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사회·문화·교육계 인물들이 조용한 산촌마을을 아지트

로 삼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흐름의 포문을 연 계기가 1908년 삼산학교의 설립입니다. 성북구 최초의 학교로 설립 이후 본연의 기능인 교육은 물론 마을자치조직 운영과 운동회 등 각종 행사와 사회계몽활동을 전개했던 주요 기관이었습니다. 성북구의 삼산학교를 선두로 성북구 인근지역에 경성제국대학, 보성고보 등 조선인 학교의 이전 및 설립이 이어지면서 1920년대 중반 이후로는 교육기



대한제국의 고종

관이 밀집된 동네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산학교를 이야기할 때 지나칠 수 없는 한 사람이 학교의 설립자 황윤명입니다. 고종의 내시였던 그는 왕이 하사한 사명인 ‘수언’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들 김수영은 고종과의 긴밀한 관계 하에 항일 의병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성북구의 독립운동가와 지역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인물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지요.

애국계몽운동과 항일의병의 중심이 된 삼선평과 흥천사

그렇다면 당시 성북구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어떤 곳으로 통했을까요. 당시 성북구에는 조선시대 5군영의 하나인 어영청과 대한제국 친위대의



삼선평

훈련장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지금의 삼선교 근처, ‘삼선평’이라 불렀던 평평한 모래 언덕에 위치했습니다. 그랬기에 앞서 소개한 김규식, 나중소와 같은 군인들이 삼선평 인근에 다수 거주했지요. 그들이 곧 의병투쟁과 무장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었습니다. 1896년에는 최초의 근대적인 운동회가 개최되었고 1906년 3월에 대한체육구락부와 황성기독교청년회 간의 한국 최초의 축구경기가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삼선평은 또한 민족계몽운동의 대표적인 요처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1907년에는 도산 안창호의 강연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간절한 애국심으로 꺼져가는 나라의 생명에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취지의 강연이었지요. 돈암동에 위치한 사찰 흥천사 역시 당시 애국계몽운동의 대표적인 집회 장소였습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계몽운동과 주민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열렸습니다.



현재 돈암동 흥천사

이 시기 성북구는 단순히 독립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나라의 상황을 체감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교육과 계몽의 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성북구에서 대규모로 일어나게 된 까닭도 이러한 토대가 뒷받침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성북구만의 특징은 독립운동가들의 근거지가 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시골의 경관을 띠고 있으면서도 경성부내와 통신이 비교적 편리하고 이동이 쉽다는 지리적 특징은 독립운동가들이 결집하고 은거, 피신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만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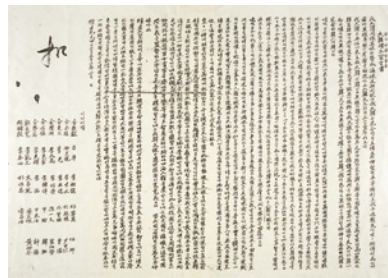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둥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 마음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떠나간님은 말이 없고 남겨진 이는 절망합니다. 화자에게는 어떤 고운님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을 남기고 떠나갔을까요. 그러나 화자는 희망을 말합니다. 슬픔의 힘을 옮겨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다고 말합니다.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한용운이 이 시를 발표한 때는 1926년이었습니다. 3·1운동의 주도로 옥고를 치르고도 항일운동에 대한 불씨를 더욱 뜨겁게 지켰던 시기였습니다. 평생을 독립운동가로 살아온 그에게 어쩌면 '님'은 빼앗긴 조국, 그러나 다시 되찾게 될 조국을 의미하지 않았을까요.

2 성북천을 따라 올려 퍼진 대한독립만세

- 1919년 3.1운동



「대한독립선언서」

독립을 위해 하나로 뭉친 각계의 사람들

경술국치 후 어느덧 일본의 식민지배 10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의 토지조사사업과 헌병경찰을 앞세운 무단통치는 나라 잃은 사람들의 분노와 독립을 향한 열망을 한층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또한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팽배했던 민족자결주의는 우리 민족 역시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1919년 1월 21일 고종의 서거 역시 촉매가 됩니다. 이에 1919년 2월 1일,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서 활동 중인 독립운동가 39명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무오독립선언 혹은 대한독립선언이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입니다. 조소앙이 기초한 선언서에는 일본과의 병합은 무효이며 육탄혈전이라도 독립을 쟁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연서자 39인 중에는 조소앙을 포함해 김동삼 등 성북구 독립운동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인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는 조선 유학생들의 주도로 2·8 독립선언문이 낭독됩니다. 무려 적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장소에서요. 유학생들의 든든한 의지가 되어준 인물이 또한 조소앙입니다. 상하이로 망명해 항일 활동을 하던 그



2·8 독립 선언에 주도적 역할을 한 재일유학생들

는 신규식의 밀명을 받고 도쿄로 파견돼 조선의 유학생들과 접촉, 그들의 독립운동을 지도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3·1운동이 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게 된 이 거족적 민족운동을 계획하고 지도한 사람들이 민족대표 33인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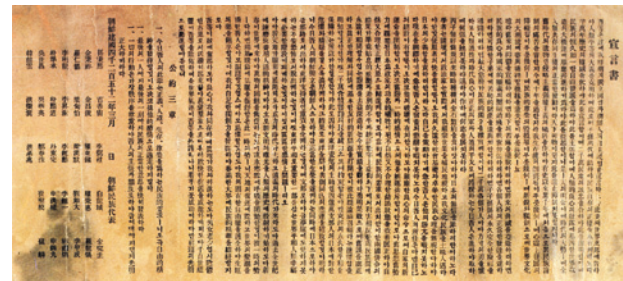
3·1 독립선언의 중심에 선 한용운

3·1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민족대표 33인입니다.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 인사들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33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가 한용운입니다. 1918년 11월 말 천도교의 최린, 오세창, 손병희 등과 만나 대대적인 독립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눈 한용운은 이후 기독교 측 중진과도

만나 독립이라는 한뜻으로 종교계의 통합을 이룹니다. 이들은 활동의 핵심인 독립선언서 낭독을 위해 독립선언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독립선언서는 육당 최남선과 최린, 그리고 한용운이 주



민족대표 33인



최남선이 기초하고 한용운이 공약삼장을 삽입한 「독립선언서」(1919.3.1)

축이 되어 작성되었습니다. 한용운은 최남선이 기초한 선언서를 좀더 명확하고 장엄한 문장으로 다듬었으며 적극적인 독립 의지를 내포한 공약삼장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독립간청서」 혹은 「독립청원서」로 명명하려던 것을 「독립선언서」로 표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지요.

일본 총리 앞에서 당당하게 독립을 선언한 임규

최남선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장소는 우정 임규의 집이었습니다. 임규는 민족대표 33인 못지 않게 3·1운동 때 중요한 역할을 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민족대표 33인을 포함해 3·1 운동의 기획과 실행에 참가한 핵심 인사를 민족대표 48인으로 청하기도 하는데 임규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최남선은 3주간 임규의 집에 머물며 물

‘언어천재’ 임규와 미륵암

십년의 세월을 성북동 모퉁이에 살고 있으니
 청룡암 미륵당이 바로 골목과 통한다
 고승이 간 뒤 경전을 걷고
 좋은 친구 때로 오면 술병을 당긴다
 정해진 곳 없는 버들은 눈보다도 더 가볍고
 살 찌려는 살구알은 구슬보다 더 크다
 늙은막에 점점 산에 사는 취미를 깨달으며
 날마다 기쁘게 홀로 즐긴다

우정 임규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만큼 언어적, 문학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일본 총리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러 갈 때 아예 일본어로 선언서 전체를 외워갈 정도였고 어린 시절 방에서 글 읽는 소리를 밖에서 듣고 한문을 깨쳤다는 일화에서 그 천재성을 짐작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주시경과 훈민정음에 관해 논쟁을 벌이고 조선어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7만자나 되는 어휘를 수집한 한글학자였습니다. 또한 일본어 문법의 대가였습니다.

평생 나라의 독립 이외에는 관심이 없던 임규는 말년을 성북동 미륵당(현 동방대학원대학교 부지)이란 암자에서 약 10년간 거주했습니다. 이곳에서 그가 쓰고 싶었던 한시를 지었고 한시집 『북산산고』(北山散稿)를 탈고했습니다. 위 구절은 북산산고에 실린 「산거잡영(山居雜詠)」 중 9연에 해당하는 구절로 그가 자리한 암자의 그윽한 운치가 느껴집니다. 임규는 미륵암에 기거하며 한용운을 비롯해 오세창, 정인보 등과 시류를 논하곤 했습니다.

민족대표 48인
 (동아일보 1920.7.12)



래 독립선언서를 썼습니다. 임규의 부인이 일본인이었기에 일본의 감시망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추측됩니다. 임규는 독립선언서가 완성된 이후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완성된 독립선언서와 독립통고문을 적국인 일본과 해외에 퍼뜨리는 일이었지요. 일본 유학생들로 일본어에 능통했던 임규는 이 일을 자청했고 그는 2월 27일 서울을 떠나 3월 1일 도쿄에 도착,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더욱이 독립선언서를 머릿속에 모두 외우고 그것들을 직접 일본어로 번역해 옮겼으며 국무총리 하라다카시(原敬) 앞에서 조선의 독립을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그의 기백에 놀란 하라다카시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다 며칠이 지나서야 그를 연행토록 지시했습니다.

오세창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 인쇄와 배포

완성된 독립선언서의 인쇄의 총책임은 위창 오세창이 맡았습니다. 그 역시 한용운과 함께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자 간송 전형필의 스승이나 다름없던 인물로 성북구와 연이 깊지요. **오세창은 천도교**

성북구의 위대한 ‘멘토와 멘티’, 오세창과 전형필



위창 오세창(좌)과 간송 전형필(우)

우리 문화재를 수집하는데 일생을, 전 재산을 바친 간송 전형필. 기와집 한 채가 1,000원이던 시절 5,000원으로 그림 한 장을 사고 2만 원으로 도자기 하나를 산 ‘이상한 남자’의 머릿속에는 오직 “조선의 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지켜낸 문화재는 훈민정음, 청자상감운학문매병, 조선백자, 신윤복의 <미인도> 등 국보 12점, 보물 10점에 이릅니다. 전형필이 문화재를 수

집하는 감식안을 기르게 해 준 스승이 바로 위창 오세창입니다. 23살의 풋풋한 젊은이였던 전형필은 은사인 서양화가 춘곡 고희동의 소개로 65세의 대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오세창을 만납니다.

당시 오세창은 최고의 금석학자이자 한학의 일인자였으며 또한 추사 김정희의 직계 제자인 역매 오경석의 아들로 청년 전형필로서는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지요. 오세창이 전형필에게 왜 문화재 수집을 하게 됐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조선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으로, 민족지도자로 광복을 열망했던 오세창이 그런 청년의 스승이 되어준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간송(澗松)이라는 전형필의 호도, 간송미술관의 전신인 보화각(葆華閣)이라는 이름도 모두 오세창이 선사한 것입니다.



직영의 인쇄소인 보성사 사장 이종일과 함께 독립선언서 2만 1,000장을 인쇄합니다. 그들은 일본군의 감시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독립선언서를 인쇄해 서울과 평양, 선천, 원산, 개성, 서흥, 수원, 사리원, 해주, 대구, 마산 등 전국 각지로 배포합니다. 독립선언서는 그 자체로 독립만세운동을 독려하는 의미를 가졌고 이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일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유학 중이던 명상섭의 ‘외사가 독립선언서’



홍보 염상섭

한편 3·1 독립선언서는 일본의 유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대표적인 인물로 홍보 염상섭이 있습니다. 『표본실의 청개구리』, 『삼대』, 『만세전』 등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사회상을 반영한 소설로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소설가이지요. 그는 해방 이후 성북구 돈암동과 성북동에 거주한 바 있습니다. 일본 장교로 복무한 형을 둔 그는 일찌감치 남부러울 것 없는 일본 유학 생활을 했으나 2·8 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서에 잇따른 영향을 받고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크게 고뇌합니다. 결국 1919년 3월 19일 거사를 치르기로 계획한 그는 오사카에서 단독으로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독립 시위를 도모합니다. 이로 인해 염상섭은 3개월의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가 전국 일본에서 홀로 독립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은 3·1운동사와 그의 생애에 있어 나름의 큰 의미를 갖습니다.

성북천과 안암천, 돈암동 산 등에서 일어난 대규모 독립운동



고종 황제의 장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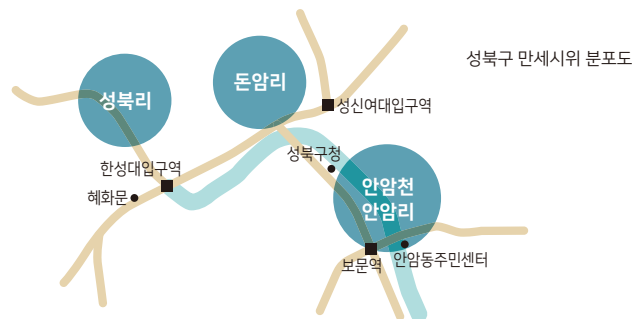
드디어 결전의 날이 도래합니다. 한용운, 오세창 등 민족대표 33인은 고종의 인산 일, 즉 고종의 장례식 기간을 거점으로 독립선언을 낭독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종로의 태화관이라는 식당에서 선언문을 낭독한 후 경찰서에 자수합니다. 종로는

이미 태극기를 품고 거리로 나온 군중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시작된 3·1운동은 점차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3·1 운동의 중심지였던 서울 탑골공원

성북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23일 안암리, 돈암리에서 약 200여명, 24일에는 성북리에서 약 60여명이 만세시위를 했고 26일에는 안암리에서 약 200여명의 군중이 만세시위를 하며 전차에 돌을 던졌습니다. 27일에는 안암천에 약 500여명, 돈암리 산 위에 약 50여명이 모여 손에 태극기와 햇불, 그리고 돌을 쥐고 열렬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2억 나라를 위해 맞섰던 성북민들

유우석, 조화벽, 피한봉, 김수룡, 손진태, 정만산, 박홍식, 김동익, 이재성.... 아마도 오늘날의 대중에게 이들의 이름은 다소 생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은 결코 유명한 소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총



서대문 형무소 수감 당시
박홍식

검을 휘두르며 독립운동을 저지한 일본군의 무력 앞에서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만으로 맞선 이들은 모두가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스러져간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은 분명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성북동에 거주한 중앙학교 학생 김수룡은 시내 곳곳에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배포했습니다. 성북동 출신인 박홍식 역시 종로5가로 나가 목청껏 독립을 외쳤습니다. 안암동 출신의 피한봉과 안암동에 거주하던 손진태는 안암천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안암동 출신인 이재성과 월곡리 출신인 정만산은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사무소(현 강북구 미아동) 앞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돈암동 출신의 김동익은 서대문 1정목 부근에서 10여명과 독립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성북동의 대표적인 작곡가 채동선도 경기도보 재학 중 3·1운동에 참가했다가 퇴학 당한 뒤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해방 이후 정릉동에 거주했던 독립운동가 유우석 역시 잊지 말아야 할 성북구의 애국지사 중 한사람입니다. 그는 1919년 4월 1일(음력 3월 1일) 학생 대표로 공주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했으며 이후에도 강릉과 양양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진행해 기회나 구금과 석방을 되풀이하며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유우석의 가족 역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아내 조화벽은 정릉에서 여생을 보낸 독립운동가입니다. 3·1운동 당시 개성 호수돈 여학교에서 ‘호수돈 비밀결사대’를 조직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유우석의 부모와 여동생



유우석의 여동생인 유관순

또한 그가 공주에서 만세운동을 했던 날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부모는 현장에서 순국하고 여동생은 체포되어 옥사합니다. 그 여동생이 바로 유관순입니다.

일본 경찰의 잔혹한 탄압과 고문

전국적인 3·1운동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비폭력으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 점차 격렬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일본 경찰의 잔악한 무력 대응은 조선인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는 한편 3·1운동의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지요. 일본 경찰의 조선인 체포 과정과 고문은 단순히 제3자의 증언만 접해도 잔혹하고 끔찍합니다. 몽둥이로 사정없이 몸을 두들겨 패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의 경우 벌거벗긴 채 특정 신체부위에 고문을 가하는, 글로 묘사하기 어려운 잔인한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경찰은 독립만세운동으로 모였던 군중이 이미 해산했음에도 눈여겨봤던 사람들을 쫓아가 갈로 몸을 난사하는 무자비한 학살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에 있었던 외국인들의 목격담을 통해서

도 전해줍니다. 《차이나 프레스》의 북경특파원이었던 나다니엘 페퍼는 일본인들이 행한 행위를 두고 ‘전율한 공포’라 전했으며 조선인의 평화적인 시위운동에 대한 보복이 취조실에서 ‘흉악하고 냉혈적으로 행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팔을 몸통에 묶은 채 천정에 매달아놓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고문하는가하면 달군 철사와 쇠붙이, 갈고리, 집게, 끓는 물, 약품과 고춧가루 섞은 물 등 상상할 수 없는 도구와 수단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등 고문방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아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일반 일본인들까지 몽둥이와 쇠갈고리로 무장한 채 3·1 운동에 참여한 조선인들을 폭행했습니다.** 한 영국인은 이러한 모습이 마치 인종전쟁을 연상케했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익환의 주도로 결성된 비밀결사단 대동단



최익환

3·1운동이 일어난 직후, 서울에서는 비밀리에 독립운동단체 대동단이 조직됩니다. 황족, 유학자, 종교인, 상공인, 청년, 학생, 부녀자 등 각 계각층의 단원들로 구성된 단체였지요. 이들은 창단 직후 약 1년간 지하문서를 배포하고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치해 조직을 확

의친왕 망명 작전과 성락원

의친왕 이강
의화군 시절 (1900)

의친왕 이강과 성복구의 인연은 굉장히 끈끈합니다. 성북동에 자리한 성락원은 약 35년간 의친왕이 별궁으로 썼던 곳입니다. 잘 알려졌듯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와 비밀결사조직인 대동단은 의친왕을 상하이로 망명시키는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지만 안타깝게 일본 경찰에 발각돼 실패했습니다. 고종의 둘째 아들이자 순종의 동생인 의친왕은 조선 황족 중 가장 독립 의지가 강했던 이로 대한제국의 특파대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하고 5년간 미국 유학을 다녀오면서 누구보다 국제 정세에 밝았습니다. 황족인 그가 망명하게 되면 한일강제

합방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고 임시정부 자금 모으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친왕 자신의 망명 의지 또한 강했지요. 결국 거사의 실패로 대동단장 전협을 비롯한 망명사건에 참여한 단원 모두가 일본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의친왕은 이 후 수차례 일본으로부터 도일을 강요받으나 끝까지 거부하고 항일 정신을 지켰습니다.



성락원 (명승 제35호)

대하는 등 활발한 독립활동을 진행합니다. 독립운동가 전협과 함께 대동단 결성을 주도한 최익환은 성복구의 주요 독립운동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대동단 활동으로 6년간 복역을 한 이후로도 신간회, 광복



김의한, 정정화 부부와
아들 김자동

단 등에서 독립을 위해 힘을 쏟았고 해방 이후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의 비밀요원으로까지 활동한 애국지사이지요. 대동단원들 중에는 주목해야 할 성북구의 독립운동가들이 꽤 많습니다. 의열단의 숨은 조력자로 알려진 오세덕, 임시정부의 요인이자 독립군양성에 헌신했던 김의한, 김의한의 아내이자 역시 임시정부의 요인으로 여성 계몽운동에 힘썼던 정정화 등 모두 독립운동에 있어 큰 활약을 했던 성북인들입니다. 대동단의 활동 중 가장 잘 알려진 일은 '의친왕 이강 상하이 망명 계획'입니다. 이들은 의친왕 이강을 상하이로 탈출시킨 후 임시정부의 지도자로 추대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여론을 고취, 최종적으로 독립운동을 촉진시키려는 목표를 세웁니다. 안타깝게도 일본 경찰에게 발각돼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지만 이 사건은 일본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조소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기초를 세우다

전국적 규모의 항쟁이었던 3·1운동은 결국 일제의 탄압으로 끝나게 됩니다. 국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3·1운동을 통해 사람들은 지도부의 중요성을 느끼고 마침내 외교 공사관들이 많이 모여 있던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두게 됩니다. 임시정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는 우리나라 최초로 삼권분립에 기초한 공화정 정부였습니다. 입법을 맡은,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한 임시의정원에서 활약한 인물로는 조소앙이 있습니다. 초대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된 그는 이승만이 초대 국무총리로 선출된 후 국무원 비서장에 선임됩니다. 또한 임시정부의 선전과 독립사상의 고치를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조직되면서 외교특파원으로도 활동하게 되지요. 이때 대한민국청년외교단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주요 단원이 민세 안재홍입니다. 언론인으로도 긴 시간 일했던 그는 독립 활동으로 가차레나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 돈암동에 거주했으며 납북된 이후 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기억해야 할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 조소앙과
한국대표단 (1919.5)

해방 후 정릉동에서 여생을 보냈던 소해 장전상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큰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 후에는 조

소앙과 마찬가지로 임시의정원으로 선출되고 외무부 위원이 됩니다. 그의 활약은 의열단의 창단 후 더욱 빛을 발합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

임규

임규가 일본 총리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며 한 말

임규 : 나는 조선의 임규요.

조선의 독립을 선포하려고 왔소.

하라다카시 일본 총리 : 지금 조선의 사태는

어째서 일어났소?

총독의 행정이 옳지 못해서

그런 것이요?

만약 그렇다면

곧장 바꾸어 주리라.

임규 : 총독이 잘하건 못하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요.

다만 자결주의 원칙의 따라

조선인의 일은 조선인이 담당하리니

속히 총독부의 문을 닫고

조선에 있는 일본 군사를

철수하는 것이 옳을 것이요!

가혹했던 일본의 탄압 속에서 독립을 외쳤던 수많은 민중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도 나라가 먼저였던 사람들은 총칼이 두렵지 않았지요. 우정 임규는 그 중에서도 기백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광장에 나와 '독립'을 외치는 일도 쉽지 않으면만 일본의 총리 앞에서 독립을 선언하는 일은 누구도 나서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임규는 독립선언서를 전달함은 물론이고 총리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독립을 선포하러 왔노라고, 일본 군사를 철수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일본 총리는 임규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3 성북, 독립투쟁의 근거지가 되다

- 1920년대 국내



의열단이 성북동을 근거지로 활동했음을 시사한 기사
(시대일보 1924.5.4)

격렬한 투쟁과 대중운동의 흐름 속 성북구

1920년대는 흔히 '문화통치기'로 일컫습니다. 3·1운동의 영향으로 일본의 탄압은 그전보다 누그러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그렇게 보였을 뿐 실은 지능적인 계획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를 독립운동가들이 모를 리 없었겠지요.

1920년대 투쟁은 앞서 소개한 의열단의 강력한 저항을 볼 수 있듯 더욱 거세집니다. 이러한 흐름에는 무정부주의 계열의 의열단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영향도 컸습니다. 사회주의는 자본가를 타도하고 농민이나 노동자처럼 힘이 없는 사람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상적 움직임이었지요. 이는 곧 식민지 조선의 처지와 농민, 노동자 등 계급적 억압을 받고 있던 절대 다수의 대중에게 현실적인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독립운

동사에서도 주요한 흐름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민족의 정신과 안위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했던 민족주의 진영과는 끊임없이 반목하며 항일활동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낳습니다.

1920년대에는 또한 여러 대중 단체들이 조직되면서 6·10만세 운동과 같은 학생운동을 포함해 어린이날을 제정하는데 일조한 소년운동,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자는 여성운동, 진주에서 시작된 신분 차별폐지 운동인 형평운동 등 다양한 대중운동이 일어납니다.

즉, 1920년대 국내 상황은 격렬한 투쟁과 대중운동이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설명되는데 성북구는 이러한 큰 흐름을 설명하는 데 있어 매우 상징적인 장소로 통합됩니다.

‘진짜 저항’을 보여준다, 의열단과 고문 장건상

1920년대 항일단체를 논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주요 단체가 의열단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 해인 1919년 11월에 만주에서 조직된 의열단은 ‘의로운 일을 열렬히 추진한다’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단체입니다. 의열단의 특

의열단



징은 오직 무력으로 싸워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무정부주의적 성향이었습니다.

외교와 계몽운동만으로는 독립이 어려우니 폭탄과 총으로 저항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지요. 이들의 무장투쟁은 실로 강력했습니다. 부산·밀양·종로경찰서 등에 폭탄을 투척하고 조선총독부, 도쿄 니주바시,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식산은행 등에 차례로 폭탄을 투척해 일본을 겁먹게 합니다. 의열단의 주축은 독립군 양성의 중심으로 일컬어지는 만주의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었습니다. 의열단에서 활약한 성북인들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먼저 장건상이 있습니다. 앞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기여를 많이 했던 인물로 소개된 그는 의열단의 고문으로도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임시정부의 외교총장으로서 의열단이 폭탄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자금을 모으는 일 등을 전체적으로 지원·지휘했습니다. 발로 뛰는 독립투사들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절차와 자금 문제 전반을 책임졌던 것이지요.



임시정부 요인들의 귀국 기념 사진.
첫번째 줄 왼쪽 끝이 장건상

의열단원 김시현과 성북구 독립운동가들의 인연



김시현

안동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시현은 성북구 독립운동가들과 두루 인연을 맺었던 인물입니다. 2016년 개봉해 흥행한 영화 <밀정>이 김시현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최근 재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독립운동에 나선 김시현은 이후 만주로 망명, 의열단에 가입 후 중국에서 확보한 폭탄을 조선으로 운반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임시정부에서 의열단의 고문으로 활동한 장건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함께 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1923년, 이른바 '김시현 사건' 혹은 '황옥 경부 사건'으로도 일컬어지는 폭탄밀반입시도로 김시현은 일본 경찰에 쫓기게 됩니다. 이때 그가 은거한 곳이 바로 안암동 오세덕의 집이었죠. 결국 체포된 김시현은 투옥되었고 출옥 이후 그는 의열단이 설립한 난징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의 생도 모집 책임자로 일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육사를 1기생으로 입교시킵니다. 성북구 독립운동가와의 인연은 또 있습니다. 김시현의 아내 권애라 역시 독립운동가로 그는 조화벽이 개성 호수돈 여학교에서 조직한 항일단체 '호수돈 비밀결사대'의 핵심 멤버였지요. 장건상, 오세덕, 이육사, 조화벽에 이르기까지 김시현과 성북구 독립운동가들의 특별한 인연이 인상적입니다.

의열단의 숨은 조력자 오세덕과 저항의 은신처 성북구

성북동 출신의 최용덕과 안암동 출신의 오세덕의 활약도 돋보입니다. 의열단원이었던 최용덕은 김상옥의 조선경찰서 투탄 계획을 위해 중국 텐진에서 사회주의단체인 무산자동맹회원 김한과 만나 폭탄의 국내 반입을 도우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오세덕은 같은 의열단원인 구여순의 한성은행 습격계획을 도와주려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릅니다. 그는 또한 의열단원 김시현의 은신처로 자신의 집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김시현은 의열투쟁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폭탄과 권총 등을 반입해 오는데 일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세덕의 집에 숨어 지내게 되지요. 오세덕은 의열단의 '숨은 조력자'였던 셈입니다.**

의열단의 근거지는 비단 오세덕의 집만은 아니었습니다. 김상옥과 의열단의 제2차 암살 파괴 활동의 주역인 무산자동맹회 김한을 체포하려던 일본 경찰이 출동한 장소는 성북동 191번지 장동옥의 집이었습니다.

의열단 공판사진
(동아일보 1924.2.15)

1920년대 성북구는 의열단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이자 근거지로 일본이 늘 주시하던 지역이었지요. 이렇듯 그 어떤 단체보다 강렬한 저항을 실천했던 의열단의 안팎에는 성북민들과 그들의 터전인 성북구가 든든한 지지대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항일단체조성과 노동쟁의로 일본에 대항한 성북민들

권위를 거부하며 무정부적 성격으로 일본에 저항한 단체는 의열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열단의 도드라진 활약에 힘입어 전국 곳곳에서는 여러 무장단체가 조직됩니다. 흔히 ‘아나키즘운동’이라고도 표현되는 무정부성격의 항일단체 중에는 김양복이 동지들과 규합해 일본 메이지대학에서 조직한 일성단이 있습니다. 안암동에서 거주한 바 있는 김양복은 단원들과 일본 천황을 암살하고 중요기관을 파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중국에서 무기를 입수하는 대로 무장투쟁을 전개기로 합니다. 그러나 평남 용강군 씨름대회에서 농민 단결과 일제 타도를 내용으로 하는 무정부주의 선전문을 살포했다가 일본에 적발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무정부주의연맹
공판 기사



항일무장단체와 그 성격은 다르지만 1920년대에는 사회주의 진영이 주도한 쟁의도 잦았습니다. 오늘날의 노동 과업으로 농민이 중심이었던 소작쟁의, 도시 노동자들이 중심이었던 노동쟁의 등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사회주의자들은 조합 활동을 통해 자본가나 지주들에게 맞서 싸웁니다. 성북동 출신의 성봉진은 1928년 경성출판노동조합에 참여해 활동하다 체포된 이후 장티푸스로 순국합니다. 일본은 당연히 쟁의를 탄압했으며 조선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러수록 농민과 노동자들의 저항은 거세졌지요.

성북구락부의 활발한 대중운동과 시광훈

의열단을 비롯한 여러 무장단체들이 일본에 대해 강력한 저항을 이어가 는 동안 성북구에서는 대중운동 또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 습니다. 1923년 창립돼 청년운동과 교육운동 등의 대중운동을 이끈 성북구락부가 그 중심에 있었지요. 처음에는 친목단체이자 계몽단체 로 두드러진 활동이 없던 성북구락부는 1925년 사회주의계 청년단 체인 한양청년연맹에 가입하면서 전보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형평사 창립축하식 개최지에 대한 신문기사

마을 공용 소방구를 구입하고 도난당한 상비상여 재구입을 하는 등 마을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삼산학교 유지를 위한 자금을 모집하고 성북소년회 창립, 성북야학원설립 등 교육활동을 전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1927년에는 어린이들의 계몽을 위해 자매단체격인 성북소년회가 창립됩니다. 이에 어린이도 엄연히 인격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년운동이 진행됐습니다. **성북구락부의 활동은 신분차별폐지운동의 일환으로 백성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자 일어난 형평운동으로까지 뻗어나갑니다.** 이러한 성북 지역 대중운동의 중심에는 삼산학교 교사였던 서광훈이 있었습니다. 성북구락부와 형평사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지요. 그는 신간회보다



서광훈

1년 앞선 1926년 창립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함께 활동한 민족유일당 항일운동단체인 고려혁명당의 당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성북구 지역과 관련한 사회주의단체 활동과 사회주의계열의 독립운동가 활동은 1930년대 이후 더욱 활발하고 본격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6·10 만세 운동 (1926)

학생이 중심이 된 6·10만세운동

한편 대중운동의 한 갈래인 학생운동은 계몽을 중시하는 다른 운동들보다 저항적인 항일운동으로 진행됩니다. 1920년대 대표적인 학생운동이자 항일운동으로 6·10만세운동이 있습니다. 1926년 일어난 6·10만세운동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기획된 운동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 진영과 천도교 등의 종교단체도 포함되면서 3·1운동 이후 거국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순종의 인산일에 일어난 이 운동은 안타깝게도 전국적인 항쟁으로 확산되지 못합니다. 고종의 인산일에 3·1운동이 일어났던 과거를 기억한 일본이 순종의 인산일을 방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6·10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중앙고보 학생 권유근은 돈암동에 거주한 독립운동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1929년 일어난 광주학생항일운동의 동조시위를 벌이려 했다가 다시

금 체포되어 2년간 투옥됩니다. 학생운동을 한 성북인 중에는 돈암동 16번지에 거주한 바 있는 장익민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추창하며 1928년 신의주고등보통학교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순종의 인산일



좌우진영을 아우른
반일사회운동단체
신간회

결과적으로 6·10만세운동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이듬해 1927년,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반일사회운동단체 조직이 탄생합니다. 바로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창립한 신간회입니다. 신간회는 또한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할 단체이지요.

민족유일당 신간회와 성북인들

민족의 단결과 정치·경제적 각성, 기회주의자 배격 등의 기본 강령으로 내세운 항일단체 신간회는 점차 규모를 확대해 전국 곳곳에 지부를 두고 만주와 도쿄에도 지부를 설립합니다. 이때 **신간회 도쿄 지회장을 지낸 이가 조현영입니다. 한의학자이자 민족운동가로 활동한 그는 성북동에 거주했던 독립운동가로 해방 이후에는 반민특위조사위원으로 활동했고 6·25전쟁 중 납북되었지요. 그의 아들이 청록파 시인 중 한 명인 조지훈입니다. 신간회의 활약은 1929년 일어난 광주학생항일운동에서 두드러집니다. 당시 신간회는 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 대회를 열어 일본의 조선인 학생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또한 전국 순회 강연회를 열어 민족의식



안재홍

을 높이고 일제 식민 통치의 잔학성을 규탄하기도 합니다. 조직의 영향력이 컸던 만큼 신간회에서 활동한 성북인들도 여럿입니다. **한용운은 신간회 중앙집행위원과 경성지회장을 겸하며 든든한 지주 역할을 합니다. 앞서 대등단 조직을 주도했던 인물로 소개한 최익환 또한 출옥 후 신간회에서 활동하지요. 그는 창립총회 당시 규칙심사위원이자 간사로 뽑힌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령을 받고 청년외교단으로 활동했던 안재홍 역시 신간회의 총무간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조선일보 부사장직을 겸하면서 조선민중대회를 열고 일본의 민족 차별적 처우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밖에 신간회 복대표대회에서 상무집행위원, 신간회 영덕지회 간사로 활동한 이기석과 소설 『임꺽정』의 저자인 홍명희의 장남으로 신간회 경성지회 간사와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홍기문,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경성고보 교사를 겸하며 신간회 경성지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문석준, 신간회 활동으로 식민지 정책의 타도와 총독정치를 배격하다 징역살이를 하게 된 유진희 등이 신간회에서 활동했던 성북인들이자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신간회는 좌우가 협력한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의미가 있었지만 1931년에 이르러 다시금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간의 갈등이 일고 결국 해소를 선언합니다. ///

이육사

절정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껴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매운 계절, 북방, 서릿발 칼날진....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이 어찌면 이렇게 시리고 아플 수 있을까요. 시는 추운 만주 지역에서 항일 운동을 전개하던 독립투사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 발 비껴 디딜 곳조차 없는 상황. 그러나 화자는 눈을 감고 무지개를 떠올립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라고 말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는 강인함은 곧 일제의 탄압에 맞선 독립투사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일본에 저항했던 민족시인이육사. 베이징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1기 출신인 그는 의열단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투척사건에 연루돼 2년 7개월간 옥고를 겪기도 했지요. 「절정」을 발표한 1940년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하던 그가 잠시 성북구 종암동에 터를 잡고 작품 활동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탄압이 가장 가혹했던 시기였지요. 조국 해방을 염원하는 그의 마음은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간절했을 겁니다. 이육사는 안타깝게도 광복이 되기 바로 직전해인 1944년 베이징의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4

국외 독립운동기지에서 활약한 성북인들

- 1920~1930년대 국외



독립군 양성소였던
신흥무관학교가 있던 간도의 풍경

만주로 간 성북인들

이제 국내를 떠나 홀썩 국외로 시선을 돌려볼 차례입니다. 앞서 소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의열단의 독립투사들을 배출한 신흥무관학교 등은 모두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감시와 탄압을 피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국과 우리나라를 옆 동네 드나들 듯 오갔습니다. 3·1 운동, 의열단의 폭탄 투척, 신간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국내의 항일 운동은 대부분 국외의 독립운동기지,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주, 상하이 등 국외 독립운동기지에서 활동했던 성북인들은 누구이며 또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경학사’라면 김동삼, ‘이씨 6형제’라면 이규창



김동삼과 협동학교
교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
(1907)

먼저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 너머에 있는 간도 지역으로 가봅시다. 간도는 백두산을 기준으로 서쪽은 서간도, 동쪽은 북간도,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쪽 연해주로 구분됩니다. 흔히 그 전체를 가리켜 만주로도 부릅니다. 서간도에서 소개할 단체는 경학사입니다. 경학사는 신민회 회원들이 서간도로 와서 세운 단체로 일송 김동삼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삼은 간도에 독립군기지의 토대를 닦아놓은 주요인물로 익히 알려졌다** 순국 후 한용운의 심우장에서 장례식이 치러졌지요. 서간도로 망명하기 전 김동삼은 구한말부터 항일운동 비밀결사단체이자 애국계몽운동단체였던 신민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신민회는 1910년대 초반 항일단체를 논할 때



‘105인 사건’으로 인해
끌려가는 신민회 회원들

중심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신민회는 1911년 일본이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일본 총독의 암살미수사건을 조작하고 이에 105인의 독립운동가를 감옥에 가두면서 해산됩니다. 이후 김동삼을 비롯한 신민회 회원들은 새로운 독립운동을 계획하기 위해 서간도로 이주해 경학사를 조직합니다.

경학사가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자금이 필요했는데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이시영, 이회영 등이 포함된 이씨 6형제였습니다. 가

이회영의 아내이자 이규창의 어머니가 쓴 『서간도시종기』



우당 이회영

『서간도시종기』는 우당 이회영의 아내이자 이규창의 어머니인 이은숙이 1966년 탈고한 자서전적 회상기입니다. 한국독립운동사의 일면을 기록한 일종의 역사서이자 전통적 양반집 부인의 교양과 생활, 의지를 절실하게 묘사한 문학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야기는 작가의 가계와 이회영과의 혼인, 신민회의 초기활동부터 1910년말 서간도(만주)로 이주 후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에 언급된 독립운동가들만 200여명에 이르지요. 한편, 1932년 이회영의 순국을 정점으로 작품 중후반에는 아들 이규창이 일본 경찰에 잡혀 투옥되면서 어

머니로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겪은 일들을 묘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용운이 『별건곤』에 게재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만주산간에서 청년의 권총에 마저 서’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 책에도 등장합니다. 이은숙은 이회영이 자신의 학생이 한용운에게 총을 쏜 것은 아닌지 학생을 불러 꾸짖었던 일과 이후 한용운을 재회해 반가워하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이은숙과 아들 이규창은 1960년부터 정릉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서간도시종기』



문도 좋고 재력도 엄청났던 이들은 오직 조국의 미래를 위해, 독립운동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 땅과 재산을 모두 팔아버립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독립운동사에 공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되는 이씨 6형제. 그 중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이가 이회영입니다. 그리고 그의 셋째 아들 이규창이 성북구에 거주한 바 있는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가문 전체가 오로지 나라의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쳤듯 운명적인 독립투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만주에서 태어난 그의 활약은 1930년대 이후 도드라집니다. 1933년에는 흑색공포단을 조직해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던 주중공사 유길명의 암살을 계획하고 1935년에는 친일파 이용로를 사살합니다. 이후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옥고를 치르다 감옥에서 해방을 맞이, 이후 정릉에 거주합니다.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초석을 다지다

이씨 6형제의 자금은 곧 경학사가 학교를 세우는데 일조합니다. 바로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앞서 소개한 의열단의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지요. 이 학교 출신들이 만든 항일 부대가 서로군정서입니다. 경학사를 세우는 데 일조한 김동삼은 신흥무관



청산리 전투에서 사용한 무기

학교를 설립할 때에도 많은 공로를 세웠습니다. 독립운동가 양성 뿐 아니라 이주민들의 정착과 동포들의 농지 개척을 돕는 일도 그의 몫이었지요. 또한 1919년

서로군정서가 조직된 이후 군사지휘를 총괄하는 참모장 역할도 맡았습니다. 이렇듯 김동삼은 1910년대 초반부터 간도 지역에 독립운동기지를 세우는데 단단한 기반을 마련한 주역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910년대 서간도의 상황입니다. 만주의 동쪽, 복간도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는데 이 지역에는 북로군정서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서간도에 서로군정서가 있었다면 복간도에는 대중교를 믿는 단체인 중광단이 후원한 부대 북로군정서가 있었지요. 그리고 북로군정서에 바로 노은 김규식과 나중소가 있었습니다. 앞서 항일 의병투쟁으로, 또 대한제국 진위대의 군인으로 활동했던 두 청년들을 기억하나요? 그들이 만주로 망명해 들어간 부대가 북로군정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역사의 멋진 기록을 남긴 청산리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었지요. 1910년대는 간도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의 청산리 전투와 같은 항일무장투쟁을 위해 교육체계를 갖추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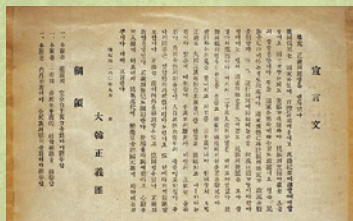


북로군정서의 독립군들이 사용했던 태극기

50대 장년의 나이로 만주에 망명해 백발을 휘날린 나중소

그는 후방에 있기로 한 백발이 성성한 참모장 나중소장군이였다.
 "아 이 웬일이십니까?, 여긴 위험합니다. 후방에 가 계십시오."
 김좌진장군은 당황한 얼굴로 권면했다.
 "아닐세. 나는 자네들 곁에 있을라네. 자네들 곁에서
 자네들 싸우는 광경을 보려하네. 저 원수 놈들이 하나하나
 쓸어져 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싶네"
 나중소 참모장은 얼굴에 미소를 띠우며
 시선을 적군 편으로 보냈다.

「대한정의단 선언문」



동아일보 1958년 4월 22일에 연재된 박계주 소설 「대지의 성좌」에는 백발이 성성한 가운데 청산리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모장 나중소의 모습이 묘사되었습니다. 요즘 기준에서 50대는 그리 많은 나이 같지 않지만 사실 신살이 넘은 노장이 전투에 뛰어들어 싸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대한제국의 군인으로 활동했던 그가 만주로 망명한 것은 이미 50세를 넘겼을 때였습니다. 어쩌

면 은퇴 후 평온한 삶을 원했을 수도 있는 나이지만 그는 대한정의단 군사교관으로 초빙돼 독립군 양성에 이바지합니다. 그는 예순을 갓 넘겨 지린성에서 별세했습니다. 나중소가 싸웠던 10여년은 그 어떤 젊은 혈기보다도 뜨거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 승리 후 기념사진을 찍은
북로군정서 부대원들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한 나중소와 김규식

간도에서 활동한 부대의 활약은 의미심장했습니다. 1920년 홍범도와 최진동 등이 이끈 대한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한 봉오동 전투가 그 시작입니다. 홍범도의 부대는 이후 백두산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 김좌진이 이끌던 북로군정서와 합

류합니다. 북로군정서를 주력부대로 한 독립

군들은 일본군과 다시금 청산리 전투를 벌입니다. 게릴라 전술로 일본군을 대파한 청산리 전투의 승리는 우리나라 무장독립운동 사상이 장 빛나는 성과를 올린 전투로 기록되었지요.



김좌진

항일의병투쟁을 주도하다 내란죄로 기소됐던 노은

김규식은 사면 이후 간도로 망명하자마자 북로군정서의 중대장을 거쳐 제2연대 제1대대장으로 임명돼 청산리 전투를 이끕니다. 김규식보다 앞서 망명한 나중소는 북로군정서의 참모장으로 청산리 전투를 지휘했지요. 백발이 성성한 채로 독립군의 선두에서 위험을 무릅 쓰고 전투에 참여했던 나중소의 일화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공으로 청산리 전투는 대승하고 독립군의 사기를 크게 올리는 계기가 됐지만 일본은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 조선인들을 무차별 사

세 명의 김규식

우리 독립운동사에는 한자까지 이름이 같은 세 사람의 독립운동가가 등장합니다. 일단 성북구의 독립운동가는 노은 김규식입니다. 이른바 만주의 호장군, 즉 호랑이 장군으로 불리며 만주를 호령한 그는 청산리 전투를 대승으로 이끄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노은 김규식은 1931년 52세의 나이로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독립운동사에는 그 이후에도 김규식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바로 우사 김규식입니다. 노은 김규식이 총을 든 호랑이로 비유된다면 우사 김규식은 펜을 든 독립지사로 비유되곤 합니다. 우사는

임시정부에서 외무총장, 국무위원, 부주석 등을 역임하며 독립을 위한 탁월한 외교활동가로 활약했습니다. 조소앙, 김원봉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창당하기도 했었지요.

마지막 한 사람은 안동 출신으로 서로군정서에서 활동했던 김규식입니다. 노은 김규식이 북로군정서에서 김좌진과 함께 활약했다면 안동 출신의 김규식은 신민회 출신으로 김동삼과 함께 독립운동건설 및 서로군정서로 활약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건국훈장이 추서된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살하고 마을을 약탈, 방화하는 등 간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일을 간도참변이라 부르지요. 이로 인해 독립군부

대는 근거지를 밀산부 한흥동으로 이동하고 이때 부대를 재정비해 연합군인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합니다. 나중소는 대한독립군단의 참모로 선임되었지요. 이들은 다시 러시아로 이동합니다. 러시아령인 자유시라는 곳에 들어가 일본의 간



간도참변



「대한독립군단 취지서」

섭 없이 항일 운동의 기반을 닦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의 강력한 반발에 러시아는 독립군들이

무장해제를 하고 올 경우에만 받아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를 독립군들이 거부하자 러시아군은 독립군을 공격합니다. 이 사건이 수많은 독립군들의 목숨을 앗아간 자유시 참변입니다. 김규식과 나중소는 목숨을 건지지만 동지들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외에서 싸우는 일은 이렇듯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험난했던 두 독립투사의 길, 그리고 창대하길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 독립군들은 다시 만주로 내려옵니다. 1925년, 독립

군들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로 부대를 정비합니다. 나중소는 신민부의 중앙집행위원회 참모부위원장에 임명됩니다. 같은 해 신민부와 정의부의 연합부대에서 간도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서남로향관으로도 활동합니다. 그 와중에 일본은 중국의 만주 군벌과 '독립군을 잡아 일본

신민부 조직에 대한 기사
(매일신보 1925.4.8)

에 넘기면 돈을 주겠다'는 요지의 미쓰야 협정을 체결해 독립군을 끊임없이 탄압합니다. 이로 인해 북간도로 돌아온 김규식 역시 동지들과 재기를 모색하는 와중 중국 관헌의 제지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는 나중소와 마찬가지로 신민부에 가담해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일본과 중국의 미쓰야 협정에 맞서 3부 통합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 결과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가 설치되는데 3부를 하나로 통합하지 못한 이유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이념 대립 때문이었습니다. 조국 해방이라는 같은 목적을 두고도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 까닭에 1920년대 이후 항일 운동사는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지요.

안타깝게도 김규식은 1931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한 백운봉, 최호 등의 반대세력의 습격으로 서거합니다. 나중소는 이보다 앞선 1928년 지린성 돈화현 산중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중 순국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해방된 조국을 다시 밟지 못한 채 타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갑작스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이 오로지 조국 독립만을 위해 온 생애를 다 바쳤음을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임시정부를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

한편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통제와 교통국을 만들어 독립운동가들이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자금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모읍니다. 일종의 어음과 같은 애국공채를 발행해 독립자금을 모으기도 하고 외교정책을 위해 미주지역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1921년 일본이 연통제와 교통국을 와해시키고 이승만의 국제연맹청원사건이 알려지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국제연맹이 임시로 맡아 달라는 이승만의 주장이 알려지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충격을 받지요. 장건상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일을 크게 성토했고 1923년 위기에 빠진 임시정부를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됩니다. 국민대표회의의 의장은 김동삼이 맡았습니다. 회의는 창조파와 개조파로 세력이 갈려 큰 논쟁이 붙습니다.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개조파는 임시정부의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자고 주장합니다. 이때 오세덕과 장건상은 신채호가 대표적인 인물로 있던 창조파로 활동합니다. 앞서 소개한 이열단의 숨은 조력자 오세덕은 우리나라로 돌아가 이열단을 본격적으로 돕기 앞서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바 있었지요. 이러한 대립 속에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이탈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임시정부의 활동도 침체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임시**



백범 김구

정부를 지키며 거사를 도모했던 이들이 있었지요.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백범 김구일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성북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소앙,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다

먼저 조소앙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원 비서장이자 외교특파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1921년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이듬해 파리 국제연맹 강화회의에 파견되어 임시정부의 전권대사였던 우사 김규식과 합류한 후 한국의 독립 승인 및 국제연맹의 가맹을 요구하는 등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지요. 그리고 같은 해 상하이에서 김상옥을 만나 종로 경찰서 투탄 거사를 계획합니다. 1927년에는 국내에서 조직된 민족유일당 신간회의 활동과 때를 맞춰 상하이에서 한국유일독립당 축성회를 결성하고 상임위원으로 선임됩니다. 그러나 다시금 좌우익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당을 결성하지 못하고 1930년 이동녕, 김구, 이시영,



조소앙



삼군주의에 입각한 한국독립당

김동삼 등 28명과 함께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지요. 그리고 이때 처음 그의 삼군주의 사상이 공식 반영됩니다. 삼군주의는 독립운동가 조소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첫 손에 꼽히는 주저어입니다. 1941년 공표된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건국강령도 삼군주의에 입각해 만들어졌습니다. 삼군이란, 개인간·민족간·국가간 균등을 말하고, 정치적 균등·경제적 균등·교육적 균등의 실현으로 삼군을 이루어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한다는 평등주의 사상입니다. 그는 이 삼군주의를 제창해 임시정부가 건국까지 좌·우파를 통합해 어떤 이념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야 할지 기본 방향을 정합니다. 1933년에는 조선혁명당, 조선의열단, 신한독립당, 대한독립당, 한국독립당의 합당 논의가 결의돼 새로운 민족단일당으로서 민족혁명당이 창당됩니다. 의열단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장건상 역시 무장투쟁을 지향하며 당원으로 활발히 활동하지만 상하이에서 일본 영사관 형사에게 체포돼 국내로 압송된 후 약 1년 간 고문과 옥살이에 시달립니다. 한편 조소앙은 한국독립당을 해체하고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만 조선의열단의 김원봉이 당권을 장악하면서 사회주의 성향이 도드라지자 결국 같은 해 민족혁명당을 탈퇴해 다시 한국독립당을 재건합니다.



한민애국단의
김구와 윤봉길, 이봉창
(왼쪽부터)

임시정부의 든든한 대들보, 김의한과 정정화

1931년, 한국독립당은 한민애국단이라는 비밀 조직을 만듭니다. 바로 이 봉창, 윤봉길 의거의 뿌리가 된 조직이지요. 한민애국단은 아직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굳건히 살아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단체가 계획한 두 사람의 의거는 일본을 크게 위협하는 계기가 됩니다.

한민애국단에는 조소앙 뿐만 아니라 항일 비밀결사단체 대동단의 요인이었던 김의한도 있었습니다. 부친 김가진과 상하이로 망명한 그는 한민애국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낙양군관학교 분교 내의 한민군관학교와 의열단 계열의 군관학교에 관여해 독립군 양성에 힘썼습니다. 김의한은 윤봉길 의거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의 탄압에 의해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다시 광저우를 통해 충칭으로 이동한 후 광복을 맞이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임시정부 활동을 합니다.



김가진

임시정부에서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안주인이라 일컬어지는 정정화입니다. 그녀는 1919년 김가진과 김의한이 먼저 상하이로 망명한 후 이듬해 홀로 망명길에 오릅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먼저 갔다고 해도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면 먼 길을 선택 나서기 어려웠지요. 임시정부의 요인이자 동포 여성들의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는 정정화는 1921년부터 1931년까지 10년 간 6차례에 걸쳐 한국과

어느 독립운동가 가족의 이야기



김구, 중국 지인들과 함께 한 김의한과 그의 가족

대동단의 총재였던 김가진과 그의 아들 김의한과 며느리 정정화, 그리고 외아들 김자동. 삼대에 걸친 집안 이력은 우리 근현대사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국내와 해외를 무대로, 해방 후에는 남북으로 삼대의 운명이 갈렸기 때문이죠. 김가진은 의친왕 이강 망명 시도 실패 전인 1919년 10월에 아들 김의한과 함께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동하다 2년 뒤 병사했습니다. 이후 김의한, 정정화 부부가 임시정

부의 요인으로 활약했습니다. 정정화는 훗날 한국의 잔다르크로 불릴 만큼 당찬 인물이었습니다. 임시정부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부부도 함께 움직였고 1928년 낳은 아들 김자동 또한 독립운동가 부모님을 따랐지요. 1944년, 청소년이 된 김자동은 중국군에 지원해 일본군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만 입대가 거부되었습니다. 해방 후 1946년 고국 땅을 오랜만에 밟은 가족은 돈암동에 거처를 마련하지만 오붓한 시간을 누리지도 못한 채 김의한의 납북으로 생이별을 합니다. 이후 김자동은 1956년, 정릉에서 북한방송을 통해 아버지의 소식을 처음 접했고 1964년에는 별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정화는 1991년 눈을 감았으며 김자동은 2004년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만들어 현재까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왕복하며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해 임시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윤봉길 의거 이후 임시정부가 거처를 자주 옮기는 중에도 임시정부의 재정과 교육을 도맡았지요. 1940년대에 이르러 그녀의 활동은 더욱 뜨겁게 이어집니다. ///

김동삼

김동삼이 옥중에서 남긴 말

“나라 없는 몸 무덤은 있어 무엇 하느냐,
내 죽거든 시신을 불살라 강물에 띄워라,
혼이라도 바다를 떠돌면서 왜적이 망하고,
조국이 광복되는 날을 지켜보리라.”

- 1937년 서대문형무소 옥중 유언

“이런 일정한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도
과분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독립군이라면 대개 풀밭이나 산 가운데서
남들이 어데서 죽었는지도
알 수 없이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 1934년 4월 2일, 옥중에서 아들에게 남긴 말

독립운동기지의 초석을 단단히 쌓아놓고 독립군을 양성하는데 힘썼던 일송 김동삼은 1931년 하얼빈에서 체포돼 평양형무소를 거쳐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결국 1937년 만 59세로 순국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까지도 그는 한결 같이 의연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의 유언에서 나라를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들에게 남긴 말에서 독립운동가의 투철한 신념이 느껴집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수습 회의의 의장을 도맡았던 김동삼. 어떤 이념이나 지역 갈등 없이 당대 독립운동가들에게 존경 받았던 김동삼. 그의 이름은 역사에 늘 푸른 소나무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성북, 독립을
말하-다,
노래하-다,
외치-다

- 1930년대



진단학회가 간행한 『한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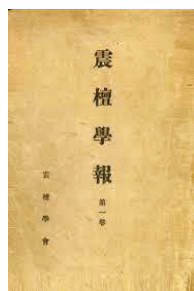
강기화된 식민 통치,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1930년대 국내 상황입니다. 어느덧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한 지 20여년을 훌쩍 넘깁니다. 경술국치 때 태어난 아이가 성년이 된 긴 시간 동안 조국을 되찾기 위해 싸워온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은 눈물겹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회영의 아들 이규창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 독립운동을 한 집안도 많았지요. 반면에 1930년대 이르러 변절자도 많이 생깁니다. 독립의 희망을 버리고 친일로 얻는 안위를 택한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비난하면서 조선인들에게 식민지 통치의 당위성을 세뇌시키고자 애를 씁니다. 이를 식민사관이라고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이를 가만두고 보지 않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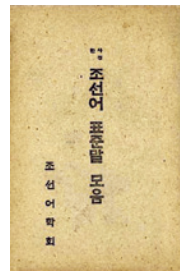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운 손진태

이 시기, 식민사관에 대항하는 여러 단체가 여럿 등장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조직이 진단학회입니다. 1934년 조직된 이 단체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언어, 문학 등의 연구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일 중심이 되는 연구는 한국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어떻게든 비하하려고 했던 일본인들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겠지요. 종로구 계동에 있던 진단학회는 1936년 초에 성북동으로 옮깁니다. 진단학회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안암동에 거주했던 손진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신민족주의사관에 입각해 연구한 인물로 평가받는 그는 3·1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1932년



진단학회 《진단학보》

조선민족학회를 창립해 1933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속학회지 《조선민족》을 창간했습니다. 역사와 민속, 그야말로 우리의 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학문으로 정립시키는데 최선을 다한 학자였고 동시에 독립운동가였지요. 안타깝게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장으로 재직 중 6·25 전쟁통에 납북됩니다.



우리 말을 연구한 조선어학회

국어 연구단체인 조선어학회도 중요한 단체입니다. 1920년대의 조선어연구회의 맥을 잇는 조직으로 이름 그대로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1927년 잡지 《한글》을 창간하고 1929년 『조선어사전』을 편찬하기 시작했으나 일본의 탄압으로 끝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1933년에는 오늘날 한글 표기의 기준이 되는 한글



조선어학회

맞춤법 통일안도 발표했지요. 그러나 일본의 민족말살 통치로 인해 1930년대 후반부터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일본은 1937년부터는 모든 관공서에서 일본어만 쓰게 했고 1940년부터는 학교에서 우리말을 아예 못 쓰게 했습니다. 결국 조선어학회를 해체시키고 대부분의 회원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앞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조직인 청년외교단과

신간회 활동을 했던 언론인 안재홍은 조선어학회의 조선어사전편찬사업에 연관돼 옥고를 치른 바 있습니다. 1942년 수감된 그는 영화 20도를 오르내리는 콘크리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선 안재홍(왼쪽에서 두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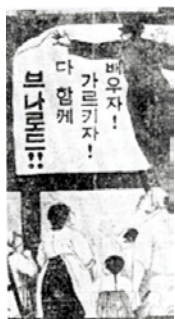
최두선

트 감방에서 100여 일 동안을 서서 지내는 고문 등으로 고된 감옥살이를 하다 감옥 안에서 조국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성북동에 거주했던 최두선도 조선어연구회의 발족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중앙중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경성방직회사 사장을 지냈던 그는 1925년 조직된 기독교계열의 항일운동단체 흥업구락부 소속이기도 했습니다. 흥업구락부는 안재홍이 간부급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단체이지요. 최두선은 후에 제1대 국무총리와 제2대 대한적십자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손기정 가슴의 일장기를 지운 애국지사 이길용

조선어연구회가 우리말을 연구하는 데 몰두하는 한편, 같은 흐름 속에서 브나로드 운동이 일어납니다. ‘민중 속으로’라는 뜻을 내건 이 운동은 전국 규모의 문맹 퇴치가 그 목적이었지요. 당시 지식인들이 식민지라는 제약 속에서 어떻게 저항의 불씨를 살리고자 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동은 동아일보사가 주축이 되어 1931년부터 1934년까지 약 4회에 걸쳐 전개됩니다. 야학을 열고 음악과 연극 등의 예술 활동을 공유하기도 하며 조선어학회의 후원으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조선어강습회가 열리기도 했지요.



브나로드 운동 포스터



일장기 말소 전후의
손기정 선수 사진

동아일보하면 손기정 일장기 말소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36년 열린 베

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은 한국인 최초로 남자 마라톤 부문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신문에 보도하게 된 동아일보 체육담당기자 이길용은 시상식 단상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간 손기정의 사진을 보며 기쁨보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의 유니폼에 그려진 일장기 때문이었지요. 이길용은 일장기를 지워버리기로 결심하고 결국 지면에는 일장기가 지워진 손기정의 사진이 실리게 됩니다. 일본은 이를 크게 문제 삼고 동아일보에 279일 간의 무기정간을 명령하고 이길용은 강제 퇴직당합니다. 그는 퇴직 이후에도 항일 활동을 멈추지 않아 여러 번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집회에서 반일 가요를 부르거나 반일 발언을 하는 데 서슴없었습니다. 창씨개명 역시 거부했지요. 이러한 일련의 항일 활동 때문에 일본은 이길용을 요주의 인물로 판단하고 그의 활동 하나하나를 주시합니다. 1930년대 초부터 6·25전쟁 남북 직전까지 성북동에 거주했던 그는 성북동 조기회 활동도 했는데 일본은 이를 항일운동단체라고 트집 잡아 그를 투옥시키기도 했지요. 남북 후 독립운동가 이길용의 삶은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어 그저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길용 기자의 셋째아들 이태영씨는 우연하게도 체육부 기자로만 33년을 근무하였으며 ‘6·25 남북인사 가족협의회’ 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이길용의 일장기 말소 사건 그 전후 이야기

이길용이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시상식 사진을 처음 접한 때에는 그의 성복동 56번지 자택으로 도착한 격월간 잡지 《아사히 스포츠》를 통해서였습니다. 이길용은 잡지의 첫 머리 사진 중 금메달의 영광을 안은 손기정과 동메달을 딴 남승룡 선수의 사진에 주목합니다. 정확히는 그들의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 마크였지요. 그는 사진을 오래 회사로 가져갑니다. 이길용은 당시 사회부 부장이었던 소설가 현진건에게 “손기정 선수의 가슴이 잘 보이지 않게 보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시상식 단상에 선 손기정과 남승룡

하는 편이 좋겠다”고 동의를 구한 후 삽화와 도안을 담당하는 이상범 화백과 “깨끗이 지워버리자”는 합의를 봅니다. 그리하여 일장기가 지워진 사진이 당일 석간에 실려 독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일본군 사령부는 수정된 사진을 포착해 바로 다음날 동아일보에 무기한 정간처분을 내립니다. 이후 직접 책임자인 이길용을 비롯한 무려 14명이 사직합니다. 이길용은 이 사건으로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지자 크게 좌절했으나 집과 가까운 심우장을 찾아 한용운과 법담을 나누며 위로를 받기도 했고 이태준, 전형필 등 이른바 ‘동네주민’들과 자주 어울리며 항일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손기정



김교신의 정릉 자택

김교신, 흑한에 살아남은 개구리에 우리 민족을 빗대다

손기정과 연관된 독립운동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손기정의 마라톤 코치였던 김교신입니다. 사실 그는 손기정의 코치보다는 조선성서연구회 활동을 바탕으로 성서 중심의 무교회주의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고 《성서조선》을 발행한 기독교 사상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36년부터 1940년까지 정릉동에 거주한 바 있는 그는 1942년 《성서조선》 3월호 책 머리말에 ‘조와(弔蛙)’라는 글을 실어 1년간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조와는 ‘개구리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의미의 제목입니다. 조와는 봄비가 쏟아지던 새벽, 기도터의 작은 폭포 밑에서 흑한에 동사한 개구리들을 발견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개구리들을 물어주는 한



《성서조선》

편 흑한을 건디고 살아남아 기어 다니는 두어 마리의 개구리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글 마지막에 ‘아, 전멸을 면했다 보다!’라고 적습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음을 개구리의 모습을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지요.



김교신이 발행한 《성서조선》의 동인들
양인성, 함석헌, 송두용, 김교신, 정상훈, 유석동
(왼쪽 뒷줄부터 시계방향)

결국 이 글로 인해 《성서조선》은 폐간을 당합니다. 옥고를 치른 김교신은 이후 일본질소비료공장에 취업했다가 1945년 광복 직전에 병으로 눈을 감습니다. 한편 금메달을 따고도 고개를 숙인 채 승리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던 손기정은 해방 이후 안암동 자택에 마라톤합숙소를 운영하며 후학을 양성하는데 힘썼습니다.

독립을 꿈꾸던 진정한 예술가 김복진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예술계는 여러 사조들의 흐름을 따르며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1920년대 사회주의가 유행하며 카프가 등장합니다. 카프(KAPF)란 말은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을 뜻하는 에스페란토어 '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카프에 소속된 예술가들은 식민지 현실은 물론 자본주의를 넘어 농민과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애환에 주목합니다.

성북구의 예술가들 중 대표적인 카프 소속 예술가는 조각가 김복진과 그의 동생인 소설가 김기진이 있습니다. 형제는 성북동에 함께 거주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수감 당시 김복진



김복진 부부

조각가 김복진은 우리나라 근대조각의 효시로 처음 서구식 조서 기법을 도입한 예술가입니다.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조각을 공부한 그는 김기진, 이서구 등과

극단 토월회를 조직하고 방학을 이용해 고국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조각가라 규정지을 수

없을 만큼 폭넓은 예술분야에서 활동했던 것이지요. 김복진은 또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1927년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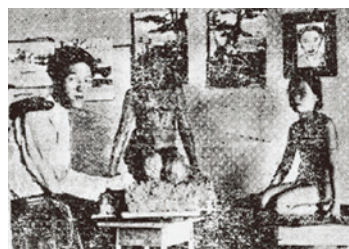
의 지배를 벗어나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목적으로 고려청년회에

가입해 활동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6년간 수감생활을 해야 했지요. 그러나 출옥 이후 카프 소속 극단의 역할을 했던 프롤레타리아 연극단체 신건설사 활동으로 인해 1934년 성북동에서 동생과 함께 다시금 체포됩니다. 극단은 지하조직으로 신건설사라는 문예단체를 두고 사회주의 활동을 했는데 결국 일본의 사회주의 탄압으로 모두 해산합니다.

이후 작품 활동에 전념하던 그는 1940년 마흔이 채 되지 않은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카프는 신건설사 사건과 함께 두 차례에 이은 일본의 검거로 인해 1935년 해체되었습니다.



극단 토월회



한 소녀를 모델로 <조선 소녀의 좌상>을 제작한 도쿄미술학교 시절의 김복진 (1925년 2월경)

시로 적은 조국해방의 열망



이육사

193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 문단에는 저항문학이 등장합니다. 한용운, 이육사, 윤동주, 이상화 등이 바로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저항시인이자 민족시인으로 일컬어지는 이들입니다. 이중 한용운과 이육사는 앞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시인 그 이상의 큰 자취를 남긴 성북구의 독립운동가들이지요. 일본의 압력으로 많은 문인들이 친일문학을 하던 시절, 곳곳하게 독립을 노래한 이들의 시는 오늘날까지도 대중에게 읊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독립 염원의 수단으로만 읽히는 시가 아닌, 문학적 아름다움을 갖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육사는 종암동에 거주하던 시기인 1939년부터 1942년까지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청포도」, 「절정」 등의 대표작을 문예지 《문장》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1939년 창간돼 1941년 일본의 강압으로 폐간된 《문장》은 당시 문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예종합지였습니다. 일본의 탄압 속에서도 한국적 정신문화유산

지켜내고자 노력했던 문예지로 평가받지요.

《문장》 역시 성북구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문장》에서 소설을 심사했던 이태준은 성북동에 거주했고 시를 심사했던 정지용은 이종석 가족에서 활동했으며 돈암동에서 거주한 바 있습니다. 《문장》의 장정(裝幀)은 성북동 노시산방



이육사(오른쪽에 앉은 사람)와 그의 친지들



문예지 《문장》

이 김용준이 주도했는데 이들 외에도 《문장》에 참여한 많은 예술인들이 성북구에 거주하거나 성북구를 문학의 아지트 삼아 자주 드나들곤 했지요. 또다른 문예사조인 모더니즘으

로 한국 근대문학을 이끌었던 구인회 문인들에게도 성북구는 특별한 장소였던 셈입니다. 또한 《문장》이 성북구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용했지만 뜨거웠던 저항의 근거지 성북

1930년대 성북구는 1920년대 보다 더욱 인구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유입이 많아집니다. 특히 1920년대부터 조성된 학도촌의 분위기는 이 시기 더욱 짙어지는데 이길용은 동아일보를 통해 발표한 수필 「신록의 대경성 부감기」에서 성북동을 완연한 학도의 마을이라고 표현합니다. 1930년대에는 서울은 도시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종로를 중심으로 일본인 인구가 증가하는데 이에 반해 비교적 한적한 성북동은 문인들의 새로운 주거지로 부상합니다. 또한 1920년대 중반부터는 성북구와 인접한 명륜동, 혜화동 등에 고등교육기관이 다수 설립되면서 조선인 학교촌이 형성되고 성북동은 그 배후지로 기능합니다.

이 시기 성북구는 일본 메이지대학 출신의 지식인 이신구가 지식사회운동을 주도했으며 자금난에 시달리던 삼산



한용운의 심우장 (서울기념물 제7호)

학교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됩니다. 1933년에는 성북 유치원도 설립됐지요. 그리고 같은 해에 한용운의 심우장도 지어졌습니다. 한용운은 1933년부터 그가 입적한 1944년까지 심우장에 거처합니다. 집이 북향인 것은 그가 일부러 조선총독부와 등지기

위해 의도한 방향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심우장에서는 1937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 김동삼의 장례식이 치러지기도 했었지요. 역시 같은 해인 1933년, 소설가 이태준도 성북동에 수연산방을 짓습니다. 그는 1947년 월북하기 전까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합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심우장과 수연산방은 1930년대의 분위기



이태준 가족 (수연산방)

를 엿볼 수 있는 도심 속 역사의 공간이자 일제강점기 뜨겁게 글을 써내려갔던 두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성북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많은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항일 정신을 표현했고 거친 탄압 속에서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펜은 갈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듯 그들이 창조한 작품들은 많은 독자들을 고무시켰



이태준 가족 (1942년경)

고 이는 곧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힘이 되었지요. 실제로 돈암동에 거주했던 양정중학교 학생 신형균은 1937년 말부터 민족적 성격이 농후한 소설을 읽고 이듬해 통의동에서 조선독립의 실행에 관해 협의했다가 체포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또한 분명 독립운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지요.

1930년대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

한편 1920년대에 사회주의 계열에 의해 일어났던 수많은 쟁의는 1930년대에 이르러 사라지게 됩니다. 1925년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고 신간회가 해산되어 합법적인 쟁의 공간 또한 축소됩니다. 이에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혁명적 조합활동을 전개합니다. 사실상 비합법적, 불법적인 쟁의활동이었지요. 드러내놓고 싸울 수 없으니 지하에서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혁명을 공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하조직 중 대표적인 단체로 경성트로이카와 경성 콤그룹이 있습니다. 1930년대 이후 성북구 지역에서 활동한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관계를 맺은 단체이지요. 경성트로이카는 1933년부터 1936년



경성 트로이카를 이끈 이재유



한국광복군

까지 노동운동, 학생운동, 반제국주의운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경성콤그룹은 경성 코뮤니스트 그룹을 줄여 부른 이름으로 1939년에서 1941년 사이 서울과 경상남도, 함경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조선공산당 재건 조직이었지요.

성북구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중 이 두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로는 정태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그는 성북동에 거주하며 적색노동자그룹, 공산주의자그룹 결성에 매진하다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5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출옥 후 경성콤그룹에 참여해 활발하게 활동했지요. 성북동에 거주했던 방용모, 돈암동에 거주했던 이현우, 정릉동에 거주했던 주영복, 안암동에 거주했던 김상준과 김순원 등은 모두 경성콤그룹에 소속되거나 연루되어 체포되었던 이들입니다. 두 단체 외에 사회주의자로 활동했던 이들로는 성북동에 거주했던 김하경, 안북산과 돈암동에 거주했던 홍석표, 안암동에 거주했던 김용태 등이 있습니다. 성북동에 거주했던 배성룡 또한 1930년대에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1924년 사회주의단체 화요회와 1926년 제2차 조선공산당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사회주의 활동가들은 비록 민족주의와 대립하며 그 노선을 달리 했지만 해방 전까지 일본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했고 희생했습니다.

중·일전쟁으로 변화를 맞이한 국외 독립운동

일본이 국내에서 민족문화말살 통치를 펼치고 있던 1930년대, 국외에선 여전히 투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앞서 1920년대 후반 북만주 지역에 조직됐던 혁신회는 한국독립당으로, 남만주지역의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으로 바뀝니다. 이들은 각각 그 산하 부대로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을 창군하지요. 이들은 각각 활동 근거지에서 일본군과 맞섭니다. 1931년 일본군이 만주 지역을 침략하며 일어난 만주사변은 이전까지 일본에 협조적이던 중국인들이 한국 독립군들과 연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일본은 만주사변 이후 끊임없이 대륙 침략을 강행하게 되고 결국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일어나지요. 만주 지역이 거대한 전쟁터가 되다보니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한편 임시정부의 소소양은 중·일전쟁을 계기로 광복전선의 강화를 기하기 위해 자신이 이끌던 한국독립당, 1935년 김구가 창당한 한국국민당, 조



한국독립당 조소양

선혁명당과 제후해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1940년 3당을 통합해 한국독립당을 재건 및 창당하며 다시금 삼균주의를 정립하지요. 같은 해, 충칭으로 자리를 옮긴 임시정부는 민족주의 진영의 항일독립 요인들을 결집해 한국광복군을 조직합니다. ///

김광섭

이별의 노래

- 서대문형무소행

나는야 간다

나의 사랑하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깊은 산 뿔골 속에

숨어서 우는

작은 새와도 같이

나는야 간다

푸른 하늘을

눈물로 적시며

알지 못하는

어둠 속으로

나는야 간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광복 직전까지 일본의 민족말살통치는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일본의 야욕은 커져만 가서 태평양전쟁에 조선인들을 동원시키고 식민지 통치의 당위성을 부각시킵니다. 조선인이 조금만 일본에 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곧바로 체포해 모진 고문을 가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당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옥살이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몸 바친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북동 비둘기」로 잘 알려진 시인 김광섭 역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는 죄목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지요. 새벽녘, 갑자기 들이닥친 일본 경찰에게 끌려간 그의 좌절과 안타까움이 시 「이별의 노래」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6

조국 해방을 위한 성북인들의 마지막 투쟁

- 1940년대



일본의 진주만 기습
(1941. 12. 7)

수세에 몰린 일본과 끝까지 저항하는 독립투사들

1940년대, 마침내 조국 해방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일전쟁에 이어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을 확보한 일본은 결국 이 때문에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중국 뿐 아니라 미국까지 건든 셈이었으니 승리가 어려운 싸움에 뛰어든 것이었지요. 일본의 국운이 쇠하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들의 통치 하에 있었습니다. 독립의 희망이 보이는 듯해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지요. 30년 넘게 싸워온 독립운동가들은 이제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하게 투쟁을 진행합니다. 1940년대, 성북구는 청년 지식인과 민족 지도자의 거주지로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독립운동의 방략을 찾고 독립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조선방송협회가 방송을 송출한
경성중앙방송국 전경

시국담으로 고초를 겪은 성북인들

1940년대 초 주목할 만한 독립활동 중 하나는 시국담을 논하는 것이었습니다. 말그대로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독립운동가들은 물론 학생들과 지식인들은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송출된 단파방송을 듣고 전쟁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고 앞으로의 동향을 예측하고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상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북동과 삼청동 등 은밀한 장소를 찾아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소식을 나누었지요.

성북동에 거주했던 노현중과 이근창은 단파방송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주변에 알렸다가 옥고를 치르게 된 인물입니다. 노현중은 조선방송협회 사업부 보수와 기술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외부 방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지요. 그는 전파수신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전파된 일본어와 한국어 방송을 청취했습니다. **주로 미군이 일본군을 제압했다거나 일본군의 패망이 예상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노현중은 이러한 내용을 삼청동과 성북동에 모인 지인들에게 전하며 독립은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결국 유언비어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근창 역시 1941년과 1943년에 걸쳐 수신기로 미국으로부터 한국어 방송을 접하고 전시 상황을 주변에 알렸고 이로 인해 감옥에 들어갑니다. 안타깝게

도 그는 1944년 옥중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가 듣고 알린 소식이 이듬해 실현되었지만 정작 당사자는 살아서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독립을 열망하다 광복 순간을 맞이하지 못한 채 소리 없이 스러져간 애국지사들은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독립의 희망을 말한 대가는 가혹한 처벌로

성북동에 거주했던 문석준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본 유학 후 경성사립보성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일하며 신간회 경성지회에 소속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943년 함흥에서 친구들에게 방송에서 접한 소식을 전합니다. “미국정부의 지원 아래 조선임시정부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조선의 독립이 실현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국담을 나눈 사실이 발각되면서 경성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을 선고 받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건강이 악화돼 숨을 거둡니다.

성북동에 거주했던 정진숙은 조흥은행에서 행원으로 근무했는데 동료와 잡담 중 사이판에서 수세에 몰린 일본군이 옥쇄(玉碎)를 위해 다른 외국인들은 모두 섬 밖으로 내보내고, 조선인들만을 전부 기관총으로 사살했다는 이야기를



김광섭

전하게 되고 이것이 발각되어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복 직전
까지 일본 경찰들의 감시가 얼마나 철저하고 가혹했는지를 알 수 있지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본의 패망을 내다보는 시국담은 자연스럽게 오갔습
니다. 성북동에 거주했던 박노태는 경성제국대학에 재학 중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학생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고 어서 독립을 도모해야 한
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에게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조선이 독립할 것이라고 이야기하
며 국외에서 활동 중인 독립운동가들의 근황 또한 전달합니다.
그는 이 일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족의식을 일깨운 두 사람, 이완기와 김광섭

한편 단순히 시국담을 나누는 일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
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 이들이 있습니다.

1940년, 성북동에 거주한 바 있는 중등학교 학생 이완기는 조국 독립에 대
한 열망이 뜨거웠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주변 친구들
에게 “조선인은 조선을 잊지 말고 학업 중에는 학우를 지도하고
졸업 후에는 농촌청년을 지도해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지요. 만주사변과 수세에 몰린 일본군의

상황 등으로 말미암아 곧 독립이 실현될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을 위해 일본군에 지원해 전쟁에 나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해 동급생들의 동의를 이끌어냈고 중등학교에
서의 일본군 지원병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1940년
말 체포돼 가혹한 신문과 조사를 받다가 1942년 순국했습니다.

이완기와 공통분모가 많은 인물이 또 있습니다. 성북동에 거주했다는 점, 중
등학교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독립사상을 전파했
다는 것이 그 공통점입니다. 바로 시 「성북동 비둘기」로 유명한
김광섭입니다. 이완기가 학생 신분으로 독립의 필연성을 이야기
했다면 김광섭은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독립 의식을 고취시켰지요.
1933년부터 1940년까지 모교 중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했던
김광섭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일본의 민족차별정책, 조선어말살정
책, 언론 탄압정책 등을 비판하며 민족의식과 독립의 중요성을 일깨웠
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 애국지사나 다름없던 영어교사 김광섭은 결
국 1941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새벽에 들이닥친 경찰에 체포됩니다.
김광섭은 체포되던 날 자신의 머리맡에는 청탁받은 신간평을
쓰기 위해 놓아둔 이태준의 문고판 단편소설집과 원고지가 놓
여있었다고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 적었습니다. 당시 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문단의 주요 문인으로서 이태준과 같은 작가
들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서대문형무소에
서 복역하고 1944년, 3년 8개월 만에 출소합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일념으로 나선 김재황과 최승우

일본의 패망이 예측되는 와중에도 자연스럽게 독립이 될 것이라는 낙관보다는 독립을 쟁취할 때까지 저항을 하겠다는 투지를 불태웠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돈암동에 거주했던 김재황은 제2의 3·1운동을 계획합니다. 연희전문학교에 재학했던 그는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항일결사단을 조직하고 1942년 3월 1일을 거사일로 정합니다. 비단 서울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해외유학생들과도 연락망을 구축해 거국적인 거사를 계획했지요. 그러나 1941년 이들의 하루 조직이 일본 경찰에 발각됩니다. 김재황은 결국 퇴학을 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안암동에 거주했으며 옥동산업주식회사에 재직중이었던 최승우는 1943년 독립운동의 뜻을 함께한 지인들과 중국 충칭으로 가려다 발각되어 귀국합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할 것을 협의,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합니다. 파괴반, 암살반, 선전반 등을 두고 주요 공장과 은행, 조선총독부, 조선군사령관 등 주요 기관을 파괴해 친일파를 처단하고 독립운동을 위한 격문의 작성과 배포 등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합니다. 그러나 실행을 하지 못하고 체포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5인 독서회’와 ‘조성회’ 등의 항일결사단체 등장

일제강점기 끝자락에서 저항의지를 불태웠던 항일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1940년 10월, 중앙중학교 4학년 학생이었던 노국환(돈암동 거주), 이기을(안암동 거주), 조성훈(돈암동 거주), 황종갑, 유명하 등 5명은 민족정기와 독립쟁취에 관한 협의와 역사·정치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5인 독서회’를 조직하고 지리를 담당했던 최복현을 지도교사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1941년 7월 활동범위를 확대해 활동하던 중 황종갑의 서신이 발각되어 그 해 8월에 검거되었습니다. 관련 학생들은 100일 내에 함흥형무소에서 석방되었고 지도교사인 최복현은 2년후인 1943년에 출옥했습니다.

또한 돈암동에 거주했던 심정섭은 관동기계제작소에 근무하던 중 1942년 지인 신현수의 민족주의 사상에 감화를 받고 독립을 열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듬해 4월 돈암동 자택에서 신현수와 함께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조성회(助成會)’를 조직하지요. 이후 조성회 창립을 세상에 선언하기로 하고 창립선언일을 명시한 선언문을 등사해 120명에게 송부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곧 발각되고 심정섭은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습니다.

조선건국동맹 맹원들의 회합



1940년 초 조직된 비밀결사단체, 조선건국동맹

광복을 앞두고 1940년대 국내에서 활동했던 독립단체 중 가장 잘 알려진 조직은 조선건국동맹입니다. 1944년 독립을 목표로 조직된 비밀결사단체로 여운형, 조동호, 이만규 등이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여운형은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 일본에 다녀오면서 일본의 패망이 가까워졌음을 확신하고 조직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타도하고 조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함과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건국강령을 제정했습니다. 조선건국동맹에서 활동했던 성북인 중에는 돈암동에 거주했던 이기석이 있습니다. 신간회와 경성 콧그룹에 참여한 바 있었던 그는 조선건국동맹에서 주로 노동군 편성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여운형

한국광복군, 가장 강력한 독립군의 등장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한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1940년의 국외 상황은 충칭에 한국광복군이, 화베이에 사회

조선의용대



주의적 색채가 강했던 조선의용대가 독립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1942년에는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임시정부에 합류합니다. 1941년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고 한국광복군을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시킵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협약에는 임시정부의 요인 조소앙과 장건상이 있었습니다.

조소앙은 임시정부의 외교부장으로서 미국과 영국, 소련과 중국 등 나개 연합국과 일본을 공격하는 데에 승인을 얻고 중한공동선전 강화에 이바지합니다. 이로써 중국 각지에서 중국군과 함께 일본군에 대항하던 한국광복군은 1943년 영국군의 요청으로 미얀마와 인도 전선에도 파견, 일본군과 싸우고 일본인 포로 심문과 선전 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장건상은 상하이에서 국내로 압송된 이후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있었는데 1942년 국내를 탈출해 충칭의 임시정부에 도착합니다. 그는 민족혁명당 당원으로서 외교연구위원과 국무위원, 학무부장 등의 요직에 선출되어 임시정부의 요인으로 활동합니다. 한갑을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젊은 당원들과 함께 인도·미얀마 전선에 파견 신청도 합니다. 장건상의 파견은 중국국민당의 견제로 불발되지만 그의 뜨거운 조국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윽고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배가 예상되자 임시정부는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한국광복군의 특수부대를 편성했습니다.



한국광복군 제2세대 대원과
미국 OSS대원들 © 독립기념관

미국의 도움 속에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는 비밀리에 국내로 들어가 일본을 교란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국내진공작전이라 부릅니다.

한국광복군으로 활약한 베테랑 군인 최용덕

한국광복군하면 앞서 의열단원으로 활약한 바 있었던 최용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준비된 광복군이었습니다. 이미 마지막 저항을 위한 만전을 기하고 있었지요. 최용덕은 1916년 18살 나이로 중국 육군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육군의 소대장, 중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1919년 고국으로부터 3·1운동의 소식을 듣고 중국 군대를 사직한 후 무기 운반 등의 의열단 활동을 하다 중국 관헌에 체포되기도 했었지요. 이후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서활보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베이징 근처 보정항공학교에 입교해 비행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는 최용덕이 공군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 전환점이 되었으며 1922년 이후 중화민국 항공대의 창설멤버, 공군기지사령관, 중화민국항공대 참모부장 등을 두루 거치며 1937년 중·일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동시에 임시정부와 독립군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



최용덕

며 독립운동을 해나갔습니다. 최용덕은 중국 공군으로 있을 때에도 “내 나라내 공군에서 내 나라 제복을 입고 나의 상관에게 경례를 붙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할 만큼 애국심이 굳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항공대로부터 받은 월급의 70%를 임시정부에 헌납하고 나머지 30%로 어렵게 가족과 생계를 이어간 일화는 그가 얼마나 투철한 독립투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1940년, 한국광복군이 창군되자 최용덕은 총사령부 총무처장으로 임명됩니다. 이후 1945년에는 광복군 총사령부 참모처장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노련하게 항일투쟁을 지휘했고 또한 국내진공작전계획에도 참여했습니다.

조국 해방의 순간, 해되지 않았던 독립군들의 노력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급작스럽게 패배를 인정하



1945년 8월15일 광복

광복절에 눈을 감은 공군 창군의 주역

내 나라, 내 공군에서 일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최용덕. 그가 대한민국 공군을 창군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 공군부대 창군을 위해 그는 미군정이 제시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거처야 했고 국내 항공 전문가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최용덕이 '이순신의 백의종군론'으로 창군 주역들을 설득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지요. 결국 1949년, 오랜 노력에 힘입어 대한민국 공군이 창군되었고 최용덕은 50세의 나이에 한국 공군의 군복을 입습니다. 마침 대한민국 초대 국방차관으로 있던 그는 공군 독립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지요. 공군 창군 후에는 공군사관학교 교장직을 맡았습니다. 공군 창군과 함께 공군가, 공사가가 등을 직접 작사하기도 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간부 및 제1기 사관후보생들의 공군 창설 기념촬영

6·25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제2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해 휴전이 될 때까지 공군의 항공작전을 총괄했습니다. 노장의 활약은 한국 공군의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 손으로 직접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순수 대한민국의 기술로 '부활호'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채신부 장관, 중화민국 대사 등을 지낸 최용덕은 1969년 광복절에 영면했습니다. 의열단과 중·일전쟁, 한국광복군을 거쳐 대한민국 공군 창설과 6·25전쟁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은 이제 '영웅의 일대기'로 남았습니다.



한국 공군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최용덕



공군사관학교 교장시절의 최용덕



국내 진입에 실패한 한국광복군

고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습니다. 모두가 바라고 또 바라던 독립, 조국 해방의 순간이 찾아왔지만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준비한 한국광복군의 국내진공작전을 개시하지도, 국내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으니까요.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와 주요 인사들은 1945년 광복 소식을 듣고 낙담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독립군들이 광복에 기여한 게 없는 것처럼 보였고 무엇보다 이제 일본이 아닌 다른 강대국들에게 휘둘릴 수 있음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복군의 치열했던 활동은 물론 식민 통치 36년의 시간 동안 독립만을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곧 나라의 독립, 민족의 해방을 자주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



태극기에 새긴 한국광복군의 서명

조지훈

역사 앞에서

역사 앞에서

만신에 피를 입어 높은 언덕에

내 홀로 무슨 노래를 부른다

언제나 찬란히 티어 올 새로운 하늘을 위해

패자의 영광이여 내게 있으라.

나조차 뜻 모를 나의 노래를

허공에 못 박힌 듯 서서 부른다.

오기 전 기다리고 온 뒤에도 기다릴

영원한 나의 보람이여

묘막한 우주에 고요히 울려 가는 설움이 되라.

근대 한의학의 개척자이자 신간회 동경지 회장으로 민족운동가의 길을 걸었던 조현영. 그의 아들 조지훈 역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인입니다. 박목월, 박두진과 함께 청록파 시인으로 활약했던 조지훈은 성북동 집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청록파 세 사람의 작품을 모아 청록집을 발간하기도 했지요. 조지훈은 친일 문인단체의 가입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붓을 꺾었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올곧은 성품을 지닌 문인이었습니다. 제자 임종국이 친일문학론을 쓰겠다고 조언을 구했을 때에도 묵묵하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습니다. 시「역사 앞에서」는 1959년 발표한 작품으로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이라는 험난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난 후의 희망을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7

광복, 끝나지 않은 성북인들의 이야기

- 1945년 이후



카이로 회담 (1943.11)

흔들의 해방정국

1945년 우리나라는 드디어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광복의 기쁨도 잠시, 미국과 소련이 국내 문제에 참견하기 시작합니다.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점령군의 형태로 자리 잡습니다. 속절없이 강대국들의 치밀한 이권 다툼 속에 휘말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광복 전, 1943년 이집트 카이로 회담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립 문제가 최초로 언급되는데 연합국들은 일본이 패망하면 식민지였던 국가들을 독립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기 반에는 임시정부 외교부장 조소앙을 비롯해 주석 김구, 선전부장 김 규식, 광복군사령관 이청천 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1945년에 이어진 포츠담 회담에서도 조소앙은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회담에서 논의된 독립은 즉각적인 독립이 아닌 적당한 때를 거쳐 독립을 시키겠다는 의미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광복 후 미국과 소련은 이러한 근거로 한반도를 점령하고 나라의 운명은 다시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건국을 준비하는 좌우합작 단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여운형

국내에서도 나름대로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광복이 되자 조선건국 동맹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지요. **조선건국동맹이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것과 달리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좌우합작 단체로 좌파는 여운형, 우파는 안재홍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의 정부수립을 기하는 준비기관’을 표방하고 충칭의 임시정부가 한국하여 정부로 행세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미국의 간섭에 앞서 하루라도 빨리 건국을 선포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고 1945년 9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한편 안재홍은 민족주의 세력의 주도권을 확보해 건국을 주도하려고 하지만 의도와 달리 공산주의 세력이 독주하며 건국을 선포하자 충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건국정부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건국준비위원회를 탈퇴합니다.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한 또다른 성북인으로는 **홍기문이 있습니다.** 앞서 신간회에서도 활동한 바 있었던 국어학자이지요. 1940년 조선일보 폐간 후 서울 창동에 은거하면서 국어 연구에 전념하던 그는 건국준비위원회 선전부에서 활동했습니다.

강경사상과 배성룡, 이념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모스크바 3상회의
한반도 신탁통치안 발표
(1946.3.20)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됐지만 미국은 강경한 자세로 38도선 이남에서는 어떤 행정조직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부정했기 때문에 충칭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에게 정부의 이름으로 오거나 주석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안된다고 못 박습니다. 나라는 어수선하고 1945년 미국, 영국, 소련이 참여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 5년간 신탁통치 실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합의됩니다. 신탁통치는 제2의 식민화나 다름없었기에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좌익과 우익은 극심하게 대립합니다. 이들은 1946년 3월 1일에 거행된 3·1운동 기념식도 따로 거행합니다. 그러나 “남한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수립하고 소련을 격퇴하자”는 이승만의 발언에 위기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 발표 후
신탁통치 반대 시위

여운형의 장례식 행렬
(1947.7.19)



의식을 느낀 지식인들은 조국 분단을 우려하며 좌우합작운동을 시작합니다. 좌익에는 여운형이, 우익에는 김규식이 운동을 이끅니다. 앞서 사회주의 계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배성룡도 좌우합작 촉진회를 결성해 활동한 바 있습니다. 배성룡의 활동에서 괄목할만한 점은 그가 사회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좌우이념대립 극복을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서 이념 대립으로 인해 숭한 분열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그는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이론개발과 실천활동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충청에서 환국한 장건상 역시 좌우합작운동에 있어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운형과 친분이 각별했던 그는 해방정국의 극좌, 극우의 편향성을 지양하고 중간좌파의 노선을 지향했습니다. 미국 역시 이들 중도파를 지지하지만 1948년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운동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장건상은 여운형의 피살 이후 함께 창당했던 근로인민당을 이끌어갑니다. 같은 해 그는 평양에서 열린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하는데 회의에서 “우리 겨레는 공산주의를 가지고는 살 수 없다. 우리가 근로인민당 운동을 하는 까닭은 공산사회를 만들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의 이념으로 평화롭게 살려는데 있다”는 발언으로 연금되고 맙니다. 결국 다른 인사들보다 보름이나 늦게 서울로 돌아오지요.

분단을 막기 위해 끝없는 독립운동가들

국내에서는 좌우 대립이, 국외에서는 냉전 전야의 불안한 상황이 계속 되는 와중에 미국의 제안으로 UN 총회는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합니다. 그러나 소련의 거부로 남북한 총선거가 좌절되고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자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1948년 5·10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북한은 1946년에 이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결성했고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의 5·10총선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남한에 남아 있는 공산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우익 진영의 대표 김구 역시 남한만의 단독 정부수립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야겠다고 생각한 김구는 조소앙, 우사 김규식, 배성룡, 김익한 등과 함께 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진행한 남북협상에서 남한도 북한도 따로 정부수립을 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하지만 사실 북한의 정부기구들은 일찌감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북협상을 위해 북으로 향한 김구 일행
(1948.4.19)



대한민국 정부수립 경축식 전경 (1948)

국외가 아닌 국내에, 임시가 아닌 정식의 정부가 수립되다

결국 엄청난 진통 끝에 남한과 북한은 38도선을 경계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한에서도 어렵사리 5·10총선이 이루어지고 제헌헌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사실상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었지요.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었고 첫 정부가 출범합니다. 이승만 정부는 친일과 처단, 농지개혁을 위한 식민지 지주제 철폐 등을 주요 과업으로 내세우지만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던 농지개혁과 달리 친일파를 처단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기득권을 지키고자 혈안이 된 고위 관리들과 비협조적인 정부의 방침 때문이었지요.

한편 독립운동가로 활약했던 많은 인물들이 정부수립과 함께 요직을 맡게 됩니다.

최용덕은 국방부 차관을 맡았고 이듬해 대한민국 공군을 창군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옥살이를

했던 김광섭은 초대 대통령
공보비서관을 맡게 됩니다.

3·1운동 때부터 줄곧 항일
운동을 해왔던 유우석은 국



최용덕 자유중국주재대사 임명식



조소앙

민의회 산업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되지요. 5·10
총선 때 참여하지 않았던 임시정부 세력은 2년 후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거 참여

합니다. 그 결과 임시정부에서 일본과 맞섰

던 조소앙, 장건상, 안재홍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조소앙

은 성북구에서 출마해 전국 최다득표로, 장건상은 부산에서 출

마해 조소앙에 이어 전국 2위의 득표를 합니다.



안재홍

6·25전쟁의 발발과 납북된 독립운동가들

제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정부의 체계가 잡히면서 정국은 안정이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대립은 결국 6·25전쟁의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38도선을 사이에 둔 3년간의 전쟁은 1953년 휴전협정으로 일단락됩니다. 일제강점기, 엄청난 고초를 겪으며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던 노력은 이제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으로 바뀝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곧 국민의 분단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위험 때문에 혹은 이념 때문에 남한과 북한 중 한 곳을 택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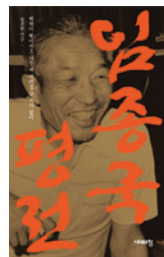
6·25 전쟁 당시 피난민 행렬

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력에 의해 북으로 끌려가거나 어이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지요.

조소앙, 김의한, 안재홍, 이길용, 조헌영 등 독립운동가로, 건국 요인으로 활동했던 성북인들 또한 전쟁 중 납북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납북 후 그들의 삶은 물론 지난 일제강점기 당시의 업적들까지도 자세하게 알 수 없게 됩니다. 기록의 단절은 곧 후세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역사의 한 페이지가 공백이 되는 것과도 같지요. 전쟁 이후의 정세는 매우 어수선했고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까지 숱한 사건과 혁명, 희생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므로 납북된 인사들은 물론 대한민국에 생존하고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조사,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때문에 나라를 위해 한평생을 살고도 궁핍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5·10 단독선거를 반대했던 많은 독립운동가 출신 정치인들이 이승만 정권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아래 감옥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던 장건상은 정릉의 작고 남루한 오두막집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시신을 모실 관을 살 돈조차 마련하지 못했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친일파 색출 또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친일파 연구의 대가 임종국

1945년 해방되던 해, 퇴각하던 일본군 상등병이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2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고야 말겠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20년 뒤인 1965년 성인이 된 학생은 당시 일본과의 회담을 준비하던 한 정치인이 “제2의 이완용이 되더라도 한일회담을 성사 시키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20년 전 만났던 일본군을 떠올리며 전을 합니다. 당시 군사정부가 회담을 통해 얻고자한 목적은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일본자본유치였습니다. 이에 한일회담은 주요의제였던 대일청구권문제, 어업문제, 문화재반환문제 등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제대로 받아내지 않는, 소위 굴욕적인 협상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마침 문학사회사를 연구하고 있던 차에 친일연구에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국가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한 개인이 나서게 된 것이죠. 심지어 그는 부친의 친일 행적까지 낱알이 고백합니다. 시인, 비평가, 사학자를 지낸 임종국의 이야기는 기입니다. 성북동에 거주했던 시인 조지훈이 그의 스승이었고 임종국 역시 1953년 조지훈의 집 앞에서 거주한 바 있습니다.



『임종국평전』
©2006 시대의 창

1966년, 월곡동 90-1547번지 거주 당시 『친일문학론』을 발간한 그는 1970년대부터 더욱 본격적인 친일 연구에 들어갑니다. 친일파와 개인의 친일행적은 물론 그 집안의 친일내력까지 줄줄 외우고

친일한 일제하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참회와 반성이 없었다는 해방 후의 현실이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의 과정이 없는 한
 민족사회의 기강은 헛말이다.
 민족사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조상임을 면할 날이
 없게 되는 것이다.

- 임종국 유고에서

다닐 정도로 친일문제에 대해서 뛰어난 전문가로 거듭났지요. 이후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일제침략과 친일파』, 『밤의 일제침략사』, 『일제하의 사상탄압』, 『친일문학 작품선집』, 『친일 논설집』을 차례로 발간했습니다. 이후에는 친일문제 연구에 체계를 세우고 총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10권에 다다르는 친일파 총서를 계획하지요. 누구라도 쉽게 규명하기에는 민감하고 까다로웠던 문제를 홀로 오랜 시간 매달려 이토록 방대한 양과 깊은 고찰로 접근한 이는 해방 이후 임종국이 유일했습니다. 1989년 임종을 앞둔 순간까지도 친일파총서 집필을 멈추지 않았던 그는 인생의 과업을 후학들에게 남기고 타계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흐른 2009년 일제식민통치 당시 반민족 친일행위를 한 한국인의 목록을 정리·수룩한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되지요.



임종국

성북, 다시 역사를 쓰다

앞서 소개한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증명하듯 성북구는 명실상부한 독립운동의 산실입니다. 이곳에서 출생하거나 거주한 독립운동가들의 일대기를 엮는 것만으로도 일제강점기를 포함한 전후 근대기가 완성됩니다. 성북구가 발굴·조사한 성북구의 항일 독립운동가는 112명에 이릅니다. 성북구를 자주 오가며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까지 더한다면 일제강점기 성북구와 관련한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는 더욱 풍부해질 겁니다. 성북구는 오랜 시간동안 세간에 드러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과 그들의 공적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날의 성북구는 곧 어제의 영웅들이 다져놓은 우리의 훌륭한 역사문화자원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전, 성북천과 안암천, 돈암동 일대 곳곳에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모진 고문을 견어내야 했던 이름 없는 애국지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감시를 피해 성북동 깊은 골짜기에서 독립투쟁을 계획하고 거사에 뛰어든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독립군이라면 남들이 어데서 죽었는지도 알 수 없이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했던 김동삼을, 정릉의 초라한 오두막에서 쓸쓸하게 눈을 감았던 장건상을, 그리고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신동엽

깍데기는 가라

깍데기는 가라

사월(四月)도 알맹이만 남고

깍데기는 가라

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中立)의 초레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1967년 1월 『52인 시집』에 수록된 신동엽의 작품입니다. 신동엽은 한국전쟁 이후 돈암동에 거주했던 성북구의 대표적인 시인이지요. 「깍데기는 가라」는 반제국주의와 분단 극복의 단호한 의지가 응집된 시로 발표 당시 대중과 평단으로부터 참여시의 절정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나 이육사의 「절정」에 닿아 있는 기념비적 저항시로 평가받고 있지요.

중립의 초레청에서 아사달과 아사녀가 혼례식을 치르는 것은 분단 극복, 곧 통일이라는 시인의 간절한 소망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작품에서 시인은 동학농민운동과 4·19혁명이 지닌 반봉건 내지 반제국주의를 분단 극복의 역사적 과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

참고 문헌	저자	출판사	발행연도
1923 경성을 뒤흔든 사람들(의열단, 경성의 심장을 쓰다)	김동진	서해문집	2016
국역 북산선고(임규 시전집)	원저 임규, 감수, 홍찬유, 역자 정후수	깊은샘	2004
김광섭, 시와 인생에 대하여	김광섭	한국기록연구소	2014
김교신 평전	전인수	삼원서원	2012
김시현 항일투쟁에서 반독재투쟁까지	김희곤	지식산업사	2013
남북민족자성의 삶과 정신	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및 이철순,김인식,정운재,이항직,이진한	선인	2011
대동단실기	신복룡	선인	2014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 조국의 별 최용덕	이윤식	비씨스쿨	2009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론가 조소앙	김기승 지음,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기획	역사공간	2015
독립유공자 공훈록 및 독립운동가 판결문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만주지역 통합운동의 주역 김동삼	김병기 지음,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기획	역사공간	2012
뻘뻘한 들에도 봄은 오리니	이이화	김영사	2008
성북구 항일독립운동가 등 발굴 조사용역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조사 연구	성북구청, 성북문화원		2016
송무의 긴 여운 지조의 큰 울림 아버지 조지훈-삶과 문학과 정신	조광렬	나남	2007
신동엽 60년대 의미망을 위하여	김준오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신동엽, 융합적 인간을 꿈꾸다	신동엽 학회	살창	2013
신화의 시간(항공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공군 창군사)	이윤식	비씨스쿨	2013
신흥무관학교(정통 독립군, 원초적 사관학교)	안천	교육과학사	1997
애국지사 최익환	최기창, 신복룡	선인	2003
애국지사 최익환 II -한국전쟁 휴전 교섭 일사 기록-	최기창, 신복룡	선인	2007
악산과 의열단, 조선독립순국열사전	박태원	깊은샘	2000
염상섭 연구	김윤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유관순	이정은	사단법인 류관순열사 기념사업회	2005
의열단 부단장 이중암 전	이중범	사단법인 광복회	1970
일장기 말소의가 기사, 이길용	한국체육기자연맹	경천문화사	1993
임종국 평전	정운현	시대의창	2006
자유를 위해 투쟁한 아나키스트 이회영	김명섭	역사공간	2008
장강일기	정정화	학인사	1998
한국 근대문학과 문인들의 독립운동	김윤식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한민족독립운동사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혁명가들의 항일 화상(김성숙,장건상,정화암,이강훈의 독립투쟁)	면담 이정식/편집해설 김학준/수정정보 김용호	민음사	2006

성북, 다시 역사를 쓰다

성북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2017년 8월 (1판1쇄) 발 행 일

성북구청 발 행 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 5가) 주 소

(02) 2241-2634 전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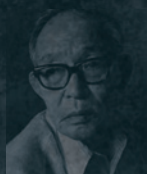
www.seongbuk.go.kr 홈페이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 (주)큐비디앤씨 기 획

(주)큐비디앤씨 (02) 795-7577 디 자 인

내용에 대한 문의는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02) 2241-2634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성북,
다시
역사를
쓰다

eb 성북

비매품/무료

03910



9 788996 878919

ISBN 978-89-968789-1-9